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462호] 2016년 9월 15일

02~03 총동창회 2학기 장학금 수여식
606명 장학생에 17억원 지원

06 제12회 동문골프대회
치대팀 단체전 우승

11 모교소식
QS세계대학평가 35위 올라



14 '서울대 시대정신과 KAIST 프로페셔널' 펴낸 조호진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세종시로 캠퍼스 이전해야"



본회는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서정화 회장이 장학생 대표 주기우 군에게서 "졸업 이후 장학사업 대열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장학금 수령 다짐서를 전달받고 이를 높이 들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장학금 총 33억원 지원

총 장학생 1,150명 혜택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

지난해 장학생 1,000명, 장학금 30억원 규모를 넘어선 본회 장학사업이 올해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는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총 606명의 재학생에 17억여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본회는 지난 2월 지급한 1학기 장학

금을 포함해 올해 총 1,151명의 재학생에 장학금 33억여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보다 3억원이 늘었다. 1980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본회가 지급한 장학금은 총 192억원이며, 총 8,548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번 2학기에 수여하는 장학금을 합산하면 누적 장학금 액수는 209억원, 누적 장학생 수 9,154명에 달한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600여 명의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에 앞서 "총동창회 장학금이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졸업 이후 장학사업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장학금 선순환 서약서'에 서명했다.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 주기우(국어교육11입) 군이 단상에 올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고 명예로운 서울대인으로 우뚝 성장해 주길 바라는 선배님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업과 인격도야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자 장학생 모두가 기립해 장학금을 출연한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면에 계속)

관악춘추

한 老동문의 절규



이선민
(국사80-84)
조선일보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위치하며 권력을 지닌 '위세(威勢)고 위직'과 그 근접부에 있으며 사회적 신뢰가 높은 '위신(威信)고위직'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고위 정치인·법조인·관료이고, 후자는 고위 교육자·언론인·종교예술인·의료인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모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혜를 많이 받았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는 송 복 교수의 질타를 받는 대상이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 교수는 다음 아니라 동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다.

동문인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특혜와 책임' (가디언)이란 책을 펴냈다.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저자 스스로 자신의 생애가 집약돼 있다고 말한다. '젊은 날 절대절망 속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고언인 것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층을 이루는 '뉴 하이'(new high), 즉 새로운 고위직 집단의 사회적 책무이다. 그는 20세기 후반 격동의 시기에 두 세대 안에 만들어진 한국의 고위직 집단은 오랫동안 형성된 구미 선진국의 상층, 즉 '올드 하이(old high)'와는 달리 뿌리가 없고 지위에 걸맞은 자기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역사성·도덕성·희생성·단합성이 결여돼 있고 천박한 언행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의 상층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린다면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국 상층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상층이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원동력은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기풍(discipline)'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교육이 사실상 붕괴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기풍 교육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상층을 길러내는 모교의 사명은 중차대하다. 성낙인 총장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인재'를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제시한 것은 '서울대생은 이기적'이라는 세평을 넘어서기 위해서였다. 서울대생에 대한 민족과 국가의 요구는 '선한 인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송 복 교수의 절규를 들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대생의 '사회적 책무'를 함께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상층은 사회 중심부에

총동창회에 15억 기부 신명규 동문 별세

서울대총동창회葬으로 엄수 장학생 등 조문행렬 이어져



총동창회에 15억원의 장학금으로 기부한 신명규(생물교육 48-54·사진) 전 관악회 이사가 9월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본회는 신 동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을 주관, 서울대총동창회장으로 치르며 장례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서비스를 지원했다.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신 동문을 위해 동창회 사무처 직원들이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식장을 지켰으며 발인 및 안장까지 주관했다.

신 동문은 지난 2006년 부군인 고 박관호(화학교육47-51) 동문과 전 재산이나 다른 없는 사재 15억원을 동창회 장학발전 건립 기금으로 쾌척하고 박관호·신명규 특지장학회를 설립했다. 이는 장학기금 모금 최초의 거액 출연인 동시에 비기업인으로서 오로지 근검절약해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사례로 동문 사회의 귀감이 됐다. 신 동문이 기부한 금액은 현재까지도 회장단을 제외한 일반 동문 기부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엄수된 신 동문의 장례식에는 박관호·신명규 동문의 장학



신명규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조기욱 동문이 조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민영 장학생이 빈소에 보내온 편지

신명규 선배님께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 때 재학 중인 장민영입니다. 선배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제 편지나 만으로도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바쁘게 일하느라 드릴 방법이 없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를 놓쳐버려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선배님처럼 제가 꼭 오고 싶었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다른 친구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사회의 유익한 인재로써 역할을 다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처럼 국제음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잊을 형이 될지 못해 송구합니다. 우리 좋은 곳까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절미 가져요.

생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시각장애인 강민영(교육15입) 장학생은 아버지를 통해 조문 편지를 전달했다. 강 양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지 못하다 이렇게 영영 인사드릴 기회를 놓쳐버려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꼭 오고 싶었던 서울대 입학 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선배님께서 주신 장학금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선배님의 사랑이 큰 격려가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성중학교 교사인 조기욱(영어교육06-14) 동문은 "입원해 계실 때 힘든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한번 더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며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참 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신 동문은 40년간 서울여상과 문영여중 교사로 봉직하며 한평생 후학 양성에 헌신해왔다. 2005년부터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로서 동창회 활성화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신 동문의 부친은 역사학자로 유명한 신석호(경성제대26-29) 동문이다. 박수진 기자

알림 제37회 서울대 홈커밍데이

제37회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를 오는 10월 16 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올해는 축하공연과 레 크리에이션 외에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시 10월 16일(일) 오전 9시
접수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행사장소 모교 버들골
참석비용 동문 및 동문 가족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등
경품 승용차, 기타 풍성한 경품 추첨(서정화 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후배들 꿈 키워야죠, 한마음 한뜻



이날 열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서정화 회장은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서울대총동창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결연장학생 116명 포함 606명 "장학금 지원 선순환 이루겠다"

(1면에서 계속)

이번 학기 장학생에는 116명의 결연장학생이 포함됐다. 본회는 올해 총 257명의 학생과 결연을 맺고 학업장려금을 전달했다. 결연장학생사업은 재학생과 동문을 연결하고 등록금과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총동창회 역점사업이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을 제공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회 서정화 회장을 비롯해 강신주·김현산·이인호·우인성·정팔도·한기서 동문과 밀리만코리아 기업 등이 결연장학생을 출연했으며, 특히 이번 학기부터 윤재하(의학01-05) 서울취안과 원장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결연 후원에 동참했다. 윤동문은 "이대 재학 시절 여러 장학 혜택을 받아 공부했는데, 이와 달리 장학금 수혜 기회가 적은 인문대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3면 특지장학회 명단 참조)

본회는 특지 장학생으로 새터민과 시각 장애인 최민석(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군 등을 선정하는 등 학업 지원이 절실한 재학생을 발굴해 지원했다. 본회에 꾸준히 거액을 출연한 동문들과 각계각층 동문들의 참여 확대를 공고한 장학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정화 회장은 "2015년 총동창회 재정 합리화와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통해서 3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했으며, 올해는 총 1,151명에게 장학금 3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동창회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 동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 "만성적인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 국가들과 우수 대학들은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모교 성낙인 총장(오른쪽)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장학생 600여 명이 졸업 후 선순환 장학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문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과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서울대 총동창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성낙인 총장이 축사를 통해 "모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단상에 계신 선배님들의 자랑스럽고 귀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장학생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서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금 서울대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장학제도가 환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광 특지장학회 임광수 명예회장

이 가장 많은 55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1억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명태현 전 관악회 이사는 지난 학기에 이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증서를 수여하며 후배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발표한 주기우 군은 "장학금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꿈을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었다"며 "저희 학우들은 선배님의 도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기에 지금 선배님이 주신 장학금은 저희로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정화 회장과 성낙인 총

장을 비롯해 임광수 본회 명예회장, 곽영필·성백전·김찬숙·홍성대·우인성·강인구·정팔도 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권영대 이사, 한기서 자문위원, 명태현 전 송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또 이상범 변호사, 김현산 전 명지대 교수, 박호전 삼덕 회장, 구재욱 생활과학대학동창회장, 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금중해 고등과학원 원장, 최삼섭 대림산업 상무, 오응현·추경옥 특지장학회 추경옥 여사, 정팔도·이자행 특지장학회 이자행 여사, 고문한 양천장학회 상임이사, 유재학 대덕전자 감사, 지종립 엠코테크놀로지 상무, 박남식 윤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수진 기자

단대동창회도 장학금 수여

이번 학기에는 12개 단과대학동창회에서 총 263명의 재학생에게 6억2,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원한 곳은 상대동창회로 재학생 80명에게 총 1억8,191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에도 최고 금액, 최다 장학생 수를 기록한 것이다.

장학생 1인당 기준으로는 의대동창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은 학과단위 동문회의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27명의 재학생에게 8,377만원을 지원해 여느 단대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했다.

한편 사대동창회는 동창회 장학재단의 출연금액보다 동문 한 명의 출연금액이 더 많아 눈에 띄었다.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이 '천재교육 장학금'으로 학기마다 5,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출연해 온 것. 이는 동창회 장학재단의 두 배에 가까운 출연금액이다.

각 단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상대동창회(회장 성기학)=80명	1억8,191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류관택)=64명	1억2,856만원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이사장 이병기)=27명	8,377만원
법대장학재단(이사장 오윤덕)=20명	6,837만원
사대동창회(회장 이규택)=28명 (천재교육 장학금 20명 5,174만원 포함)	7,217만원
의대동창회(회장 홍정용)=7명	3,500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김재영)=4명	1,200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김건호)=3명 (82동기회 장학금 250만원 포함)	1182만원
생활대동창회(회장 구재욱)=6명	800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양광희)=11명	740만원
약대동창회(회장 최규팔)=5명	500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이완영)=8명	750만원



본회 임광수 명예회장이 이날 가장 많은 장학금을 수여했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최고령자인 명태현 동문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출연자	수혜자	총액
홍성대(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회 이사장	박민혁(서양사학3) 외 10명	38,500,000
김주진(법학54인) 엠코테크놀로지 회장	윤다현(지리교육3) 외 6명	17,071,000
이길여(의학51-57) 가천대 총장	김세원(산림과학1) 외 1명	5,972,000
오동영(조선항공공학54인)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김찬숙(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강정진(치의학 석사) 외 5명	30,000,000
故 양은숙(간호51-54) 대한간호협회 재정위원장	송채림(간호3)	2,986,000
정팔도(AIP 17)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부인 이자행 여사	유진아(독어교육2) 외 9명	26,798,000
황해근(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이금옥 여사	송상원(건설환경공학 4) 외 1명	3,009,000
이종기(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오혜영(의학4) 외 1명	5,000,000
故 정성규(화학공학48-52) 전신양문화재단 이사장	박천성(컴퓨터공학 석사) 외 2명	7,500,000
화학공동체	남현성(화학4)	2,986,000
김병순(AMP 47) 이영회연합회 상임고문 장남 이지호(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지수(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외 3명	4,000,000
故 손치무(대학원70졸) 전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김주환(지구환경과학 석박사통합)	3,816,000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도건 명예회장	최태환(건축5) 외 54명	149,836,000
오인석(행정58-62) 필립인베스트먼트 회장	김세호(경제학 석사)	3,120,000
정충시(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회장	김재민(통계4)	3,000,000
곽영필(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이수영(건설환경공학1) 외 9명	31,821,000
명태현(기계공학46-50) 숭송기업 대표	심상술(간호2)	3,500,000
故 김도창(법학43-47) 전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권현승(불어불문3)	3,500,000
정학순(토목공학46-50) 삼양ENR 회장	윤새롬(건설환경공학 석사) 외 2명	7,500,000
곽동현(법학61-65) 곽동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형성(생물교육3)	2,986,000
이상범(행정53-57) 변호사·부인 고임석 여사	황규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	3,200,000
보건대학원동창회	민소영(보건학 석사) 외 2명	3,000,000
수학과동창회	조해강(수리과학4) 외 1명	3,000,000
최상홍(기계공학54-58) 한일MEC 회장	김승기(기계항공공학4)	3,009,000
김정희(약학57-61) 시인	이시현(국문3)	2,451,000
우인성(기계공학58-62) 인터비즈니스시스템 회장	강병현(기계항공공학2)	3,009,000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김문주(산림과학4) 외 12명	37,513,000
故 오영현(섬유공학67-71) 전반월나남시법단지 대표 부인 추경옥 여사	이상호(재료공학3)	3,009,000
최화장(섬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황지윤(경영2)	2,451,000
농대 그린장학회	이경서(식품생산과학3)	2,500,000
이종현(경제59-65) 덕인 회장·부인 신갑순 여사	송희(산업인력개발3)	2,500,000
김상하(정치45-49) 삼양사 회장	조현(사회3) 외 17명	53,523,000
김종섭(사회사업66-70)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서형교(사회복지2) 외 13명	40,146,000
김은종(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안병윤(아동가족3) 외 2명	9,000,000
故 차창수(상학55-59) 전한국알콜산업 회장	심규성(산림과학 박사)	3,816,000
이금기(약학55-59) 일동후디스 회장	유선아(약학3)	3,000,000
산학재(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대표	여무한(의학3) 외 13명	35,000,000
故 박관호(화학교육47-51) 전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이명규(생물교육48-54) 전관악회 이사	문서연(생물교육3) 외 13명	38,855,000
김두희(물리52인) 전 숙명여대 물리학과 교수	최민준(국사3)	2,451,000
권영대(약학55-59) 덕홍상사 회장	천세은(약학 석사) 외 10명	38,900,000
정계영(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강성훈(경제2) 외 8명	28,827,000
김정식(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신형철(전기정보공학 석사) 외 8명	27,914,000
서정화(법학51-55)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최경연(기계항공공학2)	3,009,000
지원철(축산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이기준(농생명공학 박사)	3,000,000
조필제(조선항공공학46-50) 세양주택 회장	최창락(전기정보공학4) 외 2명	8,446,000
나공목(상학56-61)코오롱그룹 고문	김주승(경영4) 외 1명	4,902,000
조기호(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이영자(생물교육56-60) 여사	변지은(화학교육4) 외 4명	15,000,000
故 구평희(정치47-51) 전터 명예회장	성준하(수학교육1) 외 13명	40,388,000

(장학기금 출연순)

출연자	수혜자	총액
이정상(상학59-65) 보성 회장	부유경(경영3)	2,451,000
이예식(약학46-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김가연(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	1,200,000
이준용(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송유정(건축3) 외 12명	39,122,000
김문현(상학58-64) 대일씨엔아이 회장	이지원(생명과학3) 외 1명	5,000,000
마국철(공업교육68-72) 한국열연 사장	김옥(의학1) 외 1명	5,000,000
박남식(SGS 27) 문춘문화사상연구회 회장	이수경(의류2)	3,155,000
성백전(토목공학52-56) 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	이시환(재료공학1)	3,009,000
박호진(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김영희(약국62-66) 여사	박민수(교육4) 외 10명	30,045,000
조경일(약학64-68) 하나제약 회장	김영태(약학4)	3,400,000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이동운(의학 석사) 외 1명	4,000,000
손경식(법학57-61) CJ그룹 회장	송치현(기계항공공학3) 외 2명	9,027,000
장병덕(화학교육53-57) 단일시스컴 회장	김진아(지리3) 외 2명	8,000,000
김병찬(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이승재(건축1)	3,009,000
김동길(화학교육57-61) 경양인행 회장	이상열(화학교육3)	2,986,000
故 김중현(경제55-59) 前서해문화연구소 회장	안수현(의학3)	3,083,000
유종해(법학50-54) 연세대 명예교수	윤아현(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외 1명	3,600,000
박용성(경제59-65)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박용현(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박용만(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	이태희(의학2) 외 7명	27,688,000
홍예표(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김재룡(치의학 석사)	3,500,000
김일환(천문기상64-72) 대학 대표	박성환(지리2) 외 2명	9,000,000
엄병윤(외교60-64)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김윤준(기계항공공학3)	3,009,000
박성훈(기계공학58-63) 모간 대표	조영상(동양사학)	2,451,000
약대동창회	나영서(약학4) 외 4명	5,000,000
유상부(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김세혁(독어교육3)	2,451,000
윤세영(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최민석(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외 3명	20,456,000
강신혁(종교66-73) 대우테크 대표이사	박지용(수리과학3)	2,459,000
김하영(의학70-76)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	김정주(전기정보공학2)	900,000
故 전동수(수익학52-56) 전 동화농산 대표	박상업(수익학2) 외 1명	8,326,000
故 장영목 모교 가정관리학과 명예교수 (사대 가정교육과 및 생활과학대학 동문 1백10명)	권주은(소비자아동3) 외 5명	8,000,000
하부열(경영74-78) 아섬 사장	이동준(경영4)	2,000,000
이원규(농생명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미생과장	청일철(농생명공학2)	2,000,000
故 김윤택(경대원68-70) 前양천장학회 이사장	하승욱(지구환경과학 석박사통합)	1,000,000
미대동창회	소미정(동양화1) 외 1명	4,000,000
노인환(경제54-58)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	차은호(경제4)	2,000,000
故 윤홍중(약학55-59) 前금강약국 대표 부인 이 이상인 여사	유정윤(약학4) 외 5명	24,212,000

※ 2016년 8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32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82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결연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금 출연자	수혜자	장학금 총액
정팔도(AIP 17)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신주용(인문학부2) 외 1명	3,600,000
문형주(치의학79-85) 문치과병원 원장	김도희(조소4)	2,500,000
강신주(사회교육51-55) 삼신 대표	이창희(사회교육2)	2,451,000
이인호(사학55인) KBS 이사장	고경진(서양사학2)	2,451,000
한기서(AWASB 27) 후파르마 대표	안경재(소비자아동)	4,251,000
김현산(법학54-58) 전 명지대 교수	최규희(지구환경과학4)	2,986,000
윤재하(의학01-05) 서울취안과 원장	김희숙(국문3)	2,451,000

장학사업 동참하려면...

장학기금은 연간 30억원 시대를 넘어 이제 50억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장학금 및 학업 장려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 위해 아직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참여 방법은 매월 일정금액을 나눠 기부하는 '월정기부'와 일정금액을 한 번에 기부하는 '정액기부'로 나뉜다. 월정기부는 참여신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이메일로 보내면 되며, 정액기부는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지로 입금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및 계좌번호 참조>**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학교 장학기금으로만 사용된다.

장학금 출연자들에 대한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모든 기부자의 명패가 관악캠퍼스 내 건립 예정인 역사연구기록관에 기록되며, 기부자와 가족들에게는 모교 병원 건강진단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우 프로그램 참조>**

예우 프로그램

예우 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얼굴부조(SNU장학빌딩)	○				
장학금 명칭 부여	○	○	○		
장래서비스 지원	○	○	○		
감사패	○	○	○	○	○
명절 선물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건강진단비 감면	○	○	○	○	○
주요 행사 초청	○	○	○	○	○
기념품	○	○	○	○	○
매월 동창신문 발송	○	○	○	○	○
기부금 영수증	○	○	○	○	○

홈페이지 www.snua.or.kr
 계좌번호 (예금주: 재단법인 관악회, 무통장 입금시 성명, 입학년도 기재바랍니다)
 신한 140-006-909438 국민 827-01-0248-017
 농협 069-01-272391 우리 1005-202-771270

본회, 재학생 취업 지원도



서정화 회장(왼쪽 셋째)과 성낙인 총장(넷째) 등 본회 및 모교 주요 인사들이 지난 9월 6일 열린 '2016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가 재학생 취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모교 경력개발센터와 공동주관으로 '2016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것.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LG·한화그룹 등 대기업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까지 총 150여 개의 유망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6일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서정화 회장과 박승희 사무총장, 성낙인 총장과 박찬욱 교육부총장을 비롯해 안형수 삼성증권 주임, 최동일 LG디스플레이 연구원 등이 참가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총동창회 결혼정보 협력파트너 엔노블이 동문분들께 특별한 우대혜택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가족 분들을 위해 최고의 결혼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블 No.1 결혼정보, 엔노블(서울대 동문전용 초/재혼 무료상담 02-3445-2445)



백선미 커플매니저

젊은 감각과 안목의 정확하고 빠른 매칭

- 2015년 엔노블 성혼을 공동 1위
- 방송출연: JTBC(아는형님), KBS(생방송 오늘아침)



김경애 커플매니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스타 커플 매니저

- 재벌가 및 상류층 결혼전문가(대기업 임원 출신)
- 누적 성혼 회원수 1위
- 방송출연: MBC(화성인 바이러스), MBN(아궁이), (황금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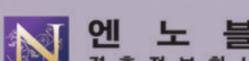
최혜경 커플매니저

꾸준하고 성실한 회원관리와 섬세한 매칭

- 2015년 엔노블 성혼을 공동 1위
- 방송출연: JTBC(벨로루시)



대표상담(무료)
1577-2050
www.nnoble.co.kr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더더스마크 4006호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오리 이원익의 부동심과 청렴행정

특별기고



서정화 회장

2016년 9월 정부는 기존의 제도적 관료부패를 개선할 수 있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관행적 부패문화가 어느 정도 바뀔지는 미지수다. 니체는 인류가 오늘날까지 치유하지 못한 가장 큰 병을 양심(本性)의 가책과 죄의식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치유책으로 인(仁)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공무원들의 공직 윤리 저해요인은 행정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貪慾), 모방소비, 공직사유관과 의리의식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관리주체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관료부패의 예방적 효과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자신에 알맞은 자기 수양 결여에서 천민성(賤民性)이 노정되었다. 천민성은 사회적 병이다. 생각과 행동이 병들어 전해지는 관료병이다. 관료병이란 개인적 탐욕에 따른 정신적 측면의 질병으로서, 공직내 개인의 직무, 직책과 관련된 정신적 물욕범죄며, 그 결과가 부패행위로 나타나는 공무원 범죄의 모태가 된다.

서양에 “고귀한 신분에서 고귀한 의무 이행”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으로서의 예의염치(禮義廉恥) 사상이 있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대학(大學)의 명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수기치인법을 훈련하였다. 명덕(明德)이란 심상(心狀)으로 잡된 생각이 없어 정신이 신령하여 여독지 않은 상태(虛靈不昧)로서, 이러한 고요한 심상에서 내외부의 변동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不動心)이 태동한다. 이들 사익만 추구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탐욕적 고위층에 대한 경고장으로서의 근대적 관료청렴 진작방안 마련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하에서는 지금부터 약 500여년 전(선조~인조) 여섯 번의 영의정을 지낸 청백리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 관련 역사적인 그의 청렴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수기치인관을 살펴 보고, 오늘날 청렴행정을 위한 교훈점과 활용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이원익의 정책 성공을 낳은 것은 수기안민(修己安民)의 힘이었다. 이원익의 사상과 실천은 기본적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이고 치인은 곧 안민(安民)이라는 유학의 기본 이념으로 집약된다. 안민이 되면 경제제민(經世濟民)이 되는 것이다. 이원익은 고매한 인품과 덕망 덕성에 백성이 그를 믿고 따라 지방관으로서 치적을 이루었고 재상(宰相)으로서 국난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둘째, 오리의 섭양법 측면이다. 우리는 섭양법으로 희로애락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 공은 정기(精氣)를 잘 보호하고 약을 먹었으며 주량이 컸으나 취하게 마시지는 않아 장수했으니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수양과 섭양(攝養)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오리의 부동심이다. 공은 일에 다다르면 마치 산악처럼 우뚝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오리의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

의 수양의 핵심은 부동심과 완평(完平)이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허목은 “이것이 공의 평생의 힘을 얻은 방책이다”라고 평했다. 이런 마음의 완전경지가 부동심이다. 오리의 ‘16자 훈계’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완전한 마음이 목표다. 공명정대해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넷째, 재물관 측면이다. 양난(임진, 정유년) 이후 공신으로 책봉(호성 공신 등)되자, 선조가 토지를 마음대로 점하라고 하자, 그는 바늘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바늘구멍(뚫지리 찌는 바늘)으로 보이는 곳”만 취했다고 전해진다. 재물욕심이 없던 그는 스스로 절신을 꾀아서 신고 지붕으로 쓸 만큼 청렴하였다.

끝으로, 그는 말년에도 공직자의 도를 끝까지 지켰다. 인조가 궤장, 안석, 지팡이 등을 하사하자 후임관료들이 기념 연회를 열었으나 장소가 없어 집의 빈터에 휘장을 쳐서 연회하였다. 그는 은 생애를 직(直)과 충(忠)으로 살았다. 공의 전덕(全德)은 한가지로 이름할 수 없으나 그 중 가장 큰 것은 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순수하게 정도를 지켰으니 백세토록 의혹이 없는 것이다. 공은 세조 정에서 시종 한 마음이었고, 충성과 공로(功勞)는 난리 때 나타났고, 지절과 의리는 혼란 때 드러났던 것이다. 88세에 ‘정당(正堂)으로 옮기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종명(考終命)한다.

개교 70주년 기념 동문작가 전시회

예술은 통일 당기는 징검다리다

장학빌딩서 11월 4일부터 민경갑·김춘수 동문 작품

모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본회(회장 서정화)가 ‘나눔과 통일 아름다운 동행’ 전시회를 연다. 본회와 K-메세나네트워크(이사장 손은신)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 홀에서 개최된다.



▲김춘수, Untitled, 2003년 작. ▲최만린, 작품O.95-11-01, 1995년 작.

원로 작가에서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동문 작가들의 분회 기부작과 초대작가 20여 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민경갑, 최만린, 이종상, 하동철, 신장식, 박항률, 김춘수, 권여현 동문을 비롯해 초대작가로 김병기, 유희영, 김태, 유인수, 주태석,

이유규, 허진, 김대신, 전용석 작가 등의 18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으로 통일문화시대를 대비하는 ‘통일인재육성’ 장학기금과 ‘통일문화예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시회 주관 손은신 동문

“전시 수익 통일문화기금으로 쓸 것”



전시를 주관한 K-메세나네트워크 손은신(산업디자인82·91·사진) 이사장은 법인 설립 목적을 통일문화 시대 준비에 들 만큼 예술을 통한 평화 기여에 관심이 높다. 다양한 동문 및 외부 작가의 뜻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에 대해 물었다.

-전시의 특징과 의미는.

“196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과 주제, 장르를 총망라했다. 각 시대별 고민의 흔적을 확인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품 소장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뜻 아래 나눔 정신을 발휘한 참여 작가들의 마음과, 이에 기꺼이 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및 감상자들 간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늘어겨려 작품이 있다면.

“올해로 101세인 김병기 선생님께서 4년여에 걸쳐 그린 작품 ‘Action In Mountain Eist’를 출품해 주셨다. 이중섭과 소학교 절친이었고 월남 이전 북한에서 문화미술동맹을 조직해 서거장을 맡으셨던 분이다. 누구보다도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시대에 작가의 사명을 강조하신다. 김태 선생님의 ‘아야진항의 아침’을 비롯한 초대 작가들의 대표작도 주목해 달라.”

-K-메세나네트워크의 향후 활동은.

“청년작가 창작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동북아의 평화적 공동체를 위해서 젊은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내년 중 한중일 문화예술교류와 환경과 생명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과 유라시아 프로젝트도 계획했다.” 박수진 기자

알림 개교 70주년 기념 연극공연에 초청합니다



임진택 이순재 심양홍 정진영 지주연 황현주

‘법대로 합시다!’ 11월 2일 세익스피어 한국적 재해석

개교 70주년 기념 연극공연 ‘법대로 합시다!’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진다.

모교와 본회가 주최하고 관악극예술회(회장 이순재)와 관악극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극은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마지막 희극 작품인 ‘Measure for Measure’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Measure for Measure’란 성경의 한 구절에서 따온 제목으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7:2)의 일부본이다.

마당극의 권위자인 임진택(외교69-75) 관악극회 대표가 연출 및 제작총괄을 맡았다. 임 대표는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작품과 한국적 연극 양식인 마당극이 만나 어떻게 상호소통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연극인생 60년을 맞이하는 이순재(철학54-58) 동문을 비롯해 심양홍(국문64-71), 정진영(국문83-89), 지주연(언론정보03-07), 황현주(체육교육10입) 동문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예매는 10월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모교 동문이 관람을 원할 경우 제작비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할인 티켓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관악극회 070-7788-5331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250

e

e

to lead the electric car generation

● 전기차 기술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

전기차 배터리부터 소재, IT분야까지 우리의 전기차 기술이 미래를 앞서갈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 협력사와 손잡고 전기차 시대의 내일을 준비해갑니다

혁신적 전지자동차 기술로 미래를 향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전장, 건설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분야의 동행 파트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For
your
Family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한민국 프리미엄 키친대전

9월 2일(금)~9월 26일(월)

#맘에속 #명품가전 #밥솥

#트렌디 #토스트기 #키친웨어

#브런치 #일상 #여유

홈 라이프스타일링의 모든 것
명품 주방가전부터 글로벌 키친웨어까지 한번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가을 그린 수놓은 '나이스 샷'



지난 9월 4일 경기도 용인 플라자CC에서 제12회 동문 골프대회가 열렸다. 서정화 회장(앞줄 왼쪽 여덟째)을 비롯해 이민섭, 이대순 부회장(여섯째, 일곱째)과 강신호 고문(아홉째) 등 대회 참가자들이 경기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문 30개팀 110여 명 참석 치대동창회 단체 우승 차지

지난 9월 4일 경기도 용인 플라자CC에서 제12회 동문 골프대회가 열렸다. 서정화 본회 회장과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신희영 연구부총장, 김기현 교무처장 등 모교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동문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는 친선팀 18개조, 대표팀 12개조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표팀은 2인 스크램블 방식으로, 친선팀은 개인별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가 진행됐다.

가을 햇살이 녹록지 않은 탓에 장시간 야외활동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그린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올 만큼 이날 동문들은 골프의 재미에 흠뻑 빠졌다. 공을 칠 땀 낯을 연호하며 서로 격려하고, 홀과 홀을 오갈 땀 카트 안에서 답소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공식 만한 행사는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의 건배사로 시작됐다. 강 회장은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라운딩을 완주해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런 연유로 남자 감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친선팀 수상자

수상내용	이름
남성부문	우승 공병채(금속공학62-70)
	준우승 이우일(기계공학72-76)
	3위 정귀열(AMP 59기)
여성부문	우승 양경숙(국약73-79)
	준우승 김성경(국약77-81)
	3위 최인숙(ABKI 3기)



성낙인 총장(왼쪽 셋째)이 김재영 치대동창회장(넷째)에게 대표팀 단체부문 우승기를 이양하고 있다.

다. 그는 "자기 일도 잘하고 남도 잘 되게 하자는 것이 인생의 모토"라며 건배사로 "건강하게 같이 살자"고 외쳤다.

한편 이번 대회의 대표팀 단체부문은 치대동창회 1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나병선(치의학69-76), 한수엽(치의학80-86), 임종호(치의학82-88), 송수복(치의학95-99) 동문 등 4명으로 구성된 치대동창회 대표팀은 127타를 쳤으며, 지난해 같은 부문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는 '준비된 우승 후보'였다. 김재영(치의학71-77) 치대동창회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손이 섬세하고 아침에 시간이 많아 골프를 잘 친다"며 "너무 자주 우승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외스러운 우

승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 개인부문은 김석원(체육교육95-99), 이진형(기계설계74-78) 동문이 10언더로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친선팀 우승은 남자 부문에 공병채(금속공학62-70), 여자부문에 양경숙(국약73-79) 동문이 차지했다. <경기결과 표 참조> 경품 추첨 시간엔 10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권을 양보하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상범(의대89-93) 동문이 이주인공. 분당차병원 원장인 그는 건강검진권 대신 와인세트를 선물 받았다. 추첨에 상관없이 모자와 티셔츠, 차량 안전봉 등이 모든 동문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나경태 기자



강신호 고문(가운데)이 대표팀 개인부문 우승자인 김석원(왼쪽), 이진형 동문에게 우승패를 수여했다. 신희영 연구부총장(왼쪽)이 친선팀 여성부문 우승자인 양경숙 동문에게 우승패를 수여했다.

협찬 감사합니다

협찬해주신 분	협찬내용
강신호(의학46-52) 본회 고문	음료수
이금기(약학55-59) 본회 부회장	음료수
김기병(행대원67졸) 롯데관광개발 회장	여행상품권
조병우(섬유공학59-64) 유봉 회장	모자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대표이사 회장	티셔츠
신동열(GLP 3기) 성문전자 회장	시상품 대금
신일산(AMPFRI 14기) 나노카보나 대표이사	카보나구이판
이동현(AMPFRI 15기) 강남와인스쿨 이사장	와인선물세트, 드라이버
민관기(사법78-91) 코스모스악기 대표이사	통기타
최만규(ACAD 82기) 대산메디컬 대표이사	저주파 치료기
윤진희(GLP 18기) 명문의학 대표	차량 안전봉
서울대병원	건강검진권
서울대 포스코스포츠센터	센터 프리미엄 패키지 3개월 이용권
다코다골프	드라이버, 하이브리드, 퍼터
이젠푸드 주식회사	치즈선물세트

대표팀 수상자

수상내용	단과대학 및 이름
단체부문	우승 치과대학동창회1팀 나병선(치의학69-76)·한수엽(치의학80-86)·임종호(치의학82-88)·송수복(치의학95-99)
	준우승 FIP동창회 이재원(FIP 8기)·김인중(FIP 8기)·김기종(FIP 8기)·임철우(FIP 12기)
	3위 법대동창회 하광룡(법학76-80)·채정석(법학75-79)·김병주(사법84-88)·박진만(사법84-88)
개인부문	우승 ROTC동문회 김석원(체육교육95-99)·이진형(기계설계74-78)
	준우승 의과대학동창회 남기세(의학84-90)·정중희(의학78-84)
	3위 의과대학동창회 장상범(의학89-93)·조성래(의학88-92)

LANEI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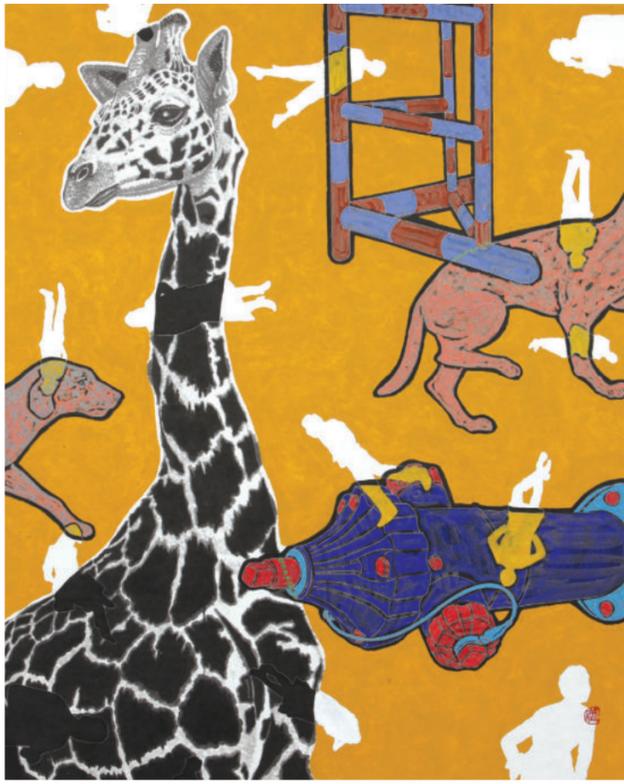
비교할 수 없을 거야!
화사하고 촉촉하게 완벽해진 피부

| NEW 비비쿠션_화이트닝 |

라네즈만의 스파클링 코트™ 기술로 피부에 반사판을 비춘 듯 화사하게 한 번, 워터 코트 기술로 촉촉하게 빛나도록 한 번 더 감싸주니까~ 이젠 비교 불가! 눈부시도록 새로워진 라네즈 비비쿠션!

빛나는 매력, 만들 수 있어요! Unleash the Sparkling Beauty in you

ARITAUM | 아리따움에서 라네즈를 만나보세요
www.laneige.com | www.facebook.com/laneige.kr | #laneige_kr | 고객센터 080-023-5454



유목동물+인간-문명, 한지에 수묵채색 및 아크릴, 162X130cm, 2010

동문미술감상

작가약력

개인전 28회
1989년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95년 제11회 한국일보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2001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2015년 10th DAF GoldenEye 한국구상작가상(DKFA)수상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 90-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등
440여 개 기획전 참가
현 전남대 교수

허진작

(동양화81-85)

작업노트

이번 작품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화합하는 순환적 자연생태관을 지키고자 하는 친환경론을 주제로 삼은 작품세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동물학적 생태지도를 연상케하는 이 작품은 주제와 색채를 효과적으로 어울리게 하고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성의 이질감을 구사하여 화면에 나오는 울림과 묵직함을 강조한다. 그연작

작품은 역동적 야생동물의 묘사를 통해 자본문명에 젖은 기계적 삶에 예측된 현대의 삶을 탈피하여 자연 본성에 가까운 자유로운 세계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인의 회화에 나타나는 서사성은 인류역사가 자연과 문명의 상호간장적 그물망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생태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회화에 재해석하고 작업하는 것이다.

치대·치대원동창회

키르기스스탄서 의료 봉사활동

박건배 명예회장 등 14명 참여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8월 24일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박건배(치의학70-76) 명예회장을 단장으로 이석우(치의학71-77), 김철수(치의학74-80), 안영두(치의학81-87), 윤정태(치의학83-89), 엄승희(치의학89-93), 박상섭(치의학88-94), 이장우(치대원08-12), 오영민(치대원10-14) 동문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14명이 올해의 봉사단으로서 출국한다.

올해 해외의료봉사단은 9월 13일부터 6일간 키르기스스탄 현지 고아원과 중증 장애인시설에서 진료 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현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선진 치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등 재능기부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 키르기스스탄은 1995년 문성일(치의학83졸) 동문을 필두로 2002년 김정태(치의학72졸) 동문, 2006년 김은우(치의학91-95) 동문 등이 선교와 봉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곳이다. 치대·치대원동창회에서는 2년 전에도 키르기스스탄에 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온바 있다.

이번 봉사단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백순지 교문을 비롯한 다수의 동문들이 후원금과 현지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치대·치대원동창회는 이번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다녀온 후 모교 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 모교 치의학대학원(대학원장 이재일)과 함께 문성일 동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카리스마치과와 진료봉사, 치의학교육 및 의료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나경태 기자

2016. 9. 13 ~ 2016. 9. 18 우원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재영 치대·치대원 동창회장(앞줄 왼쪽 넷째)과 해외의료봉사단 참가 동문 등이 발대식을 가졌다.



엘마노 운의 원포인트 '멋' ② 가을 패션

은은한 매력 '야상'

밀리터리 룩은 스테디 아이템
유행 뒤쳐졌다는 걱정 필요 없어

여성은 슬림핏, 남성은 옅은 컬러
패스트 패션 쇼윈도서 곧 만날 것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해진 가을 바람이 느껴지면, 아쉬운 친구 찾듯, 집어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 재킷과 카디건 그리고 점퍼류가 아닐까. 이번 달에는 재킷을 골랐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미 재킷(army jacket). 이탈리아어로는 자카 밀리타레(giacca militare)라고 한다. 우리말로로는 흔히 '야전상의'를 줄여서 '야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보통 '야상'이라고 표현되는 옷들이 주로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사파리 스타일을 강하게 연상시켜, 본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미 재킷(Army

jacket)'으로 칭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주로 패션과 관계없는 곳에서 소재를 찾고,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늘 현재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패션이지만, 정작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물건들이 널린 빈티지 벵룩 시장을 배회한다. 또한 다양성과 자유로운 개성을 원동력으로 삼는 패션이지만, 디자이너들은 통일성과 확립적 조적이 생명인 군대복식을 낮설게 보고, 그것을 일상으로(일부만) 가져온다.

밀리터리 룩은 이제 거의 시즌을 타지 않는 스테디 아이템으로 컬렉션에 소개되고 있으니, 유행에

뒤쳐졌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

우선 여성들을 위한 슬림핏 아미 재킷(사진1)이다. 기존의 넓은 칼라와 긴 기장, 무거웠던 원단이라는 기존 야상의 공식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미니멀한 도시 여성의 실루엣에 밀리터리 감성을 가볍고 탄성있는 패브릭(면97%, 라이크라3%)을 통해 조화롭게 터치하는 데 성공한 애니빙(Anine Bing) 디자이너의 아미 재킷이다. 클래식한 백과 함께 또는 백 없이 맨손으로도 자유로운 감성이 풍기는 룩이 연출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인 것 같지만, 조만간 자라, H&M 등 패스트패션(Fast fashion) 브랜드 윈도우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다음은 남성을 위한 야상룩(사진2)이다. 비교적 야상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패브릭에서 군대 야상의 투박하고 거친 표면과 어지러운 카모플라주(Camouflage) 패턴을 지양하고, 왁스처리한 면직물(waxed cotton)을 카키색으로 단색 처리해 부드러운 표면과 은은한 하나의 컬러로 승화시킨 아미 재킷이 남성으로서 좋은 야상룩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윤대규(생명과학97-05) 동문은...

글로벌 컨설팅기업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오랜 꿈을 찾아 32세에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이스티투토 세콜리(Istituto Secoli)에서 남성복 패턴재단을 배워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패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밀라노 폴리테크니코(Politecnico Di Milano)에서 패션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new AZ 버거

좋은 재료의 A to Z, 맛의 A to Z

호주청정우유로 만들어 육즙이 가득한 빅 사이즈 스팀 쇠고기 패티, 통일발효종 효모를 사용하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브리오쉬 번

AZ버거 오리지널 AZ Burger Original ₩6,200 / Combo ₩7,200

YOUNGONE

42년 연속 흑자 신화보다
매년 이어가는 나눔이 더 빛나는 기업

7만 8천명의 영원인들이
국경을 넘어 가족처럼 일하는 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먼저 찾는 기업

現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랭킹 1위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박희용

이것이 세계와 호흡하는 영원무역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온 글로벌 기술력,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영,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글로벌 나눔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무역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원하고, 영원이 만듭니다

(주)영원무역
www.youngone.com



GOLDWIN



TAKHI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이벤트!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벤트 기간 : 2016. 9. 5(월) ~ 2016. 9. 2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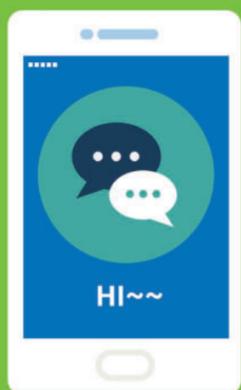
당첨자 발표 : 2016. 9. 27(화) 재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f EVENT 1. 좋아요 누르기



1 step

만만한 기부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다.
www.facebook.com/giving2snu



2 step

이벤트 포스팅에
응원댓글을 남긴다.



3 step

100인 추천하여
여행용 네임택 증정!
진짜 예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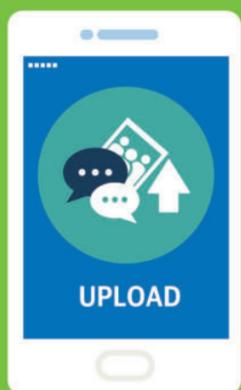
f EVENT 2. 인증샷 올리기



1 step

이메일, 포스터, *커피 등 주변의
만만한 기부 홍보물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다!

* 참여카페 : 서울대학교 느티나무 카페, 디초콜릿커피 연구공원점 등



2 step

이벤트 포스팅에
사진과 함께 댓글을 남긴다.



3 step

댓글 중 좋아요
TOP 5인에게
약콩두유 1Box 증정!
진짜 고소해요!



본 이벤트와 무관한 내용은 개별 통보 없이 관리자가 임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즉시 파기됩니다.

매월, 만명의 만원이 선한 인재를 만듭니다.

만x만한 기부

이벤트 바로가기
facebook.com/giving2snu



2,428명 졸업... “참여·봉사정신 갖춘 리더되길”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성낙인 총장이 식사를 하고 있다.

분회 졸업생에게 기념 선물 김인권 명예원장 감동 축하

모교(총장 성낙인)는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낙인 총장, 박찬욱 교육부총장, 신희영 연구부총장, 황인규 기획부총장 등 보직교수들을 비롯해 서정화 분회 회장과 학부모 등 7,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기현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학사 851명, 석사 1,000명, 박사 577명 등 총 2,42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성낙인 총장은 식사를 통해 “한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어려운 이웃나라들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우리가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 후배들도 오늘의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당부했다.

서정화 분회 회장은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전 요인은 헌신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었다며 “국가 발전의 전도를 열어낼 수 있는 지성,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겸손,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참여와 봉사의 정신을 체득한 인재가 곧 대한민국의 리더이며 서울대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직장을 선택할 때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해야 후회가 없고 설령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며 스스로 하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명예원장은 197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 후 소록도병원, 여수애양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평생을 헌신해왔다. 또한 그는 인공관절수술의 국내 최고 대가로 꼽힌다. (식사·축사참조)

졸업생 대표 연설은 산업공학과 최교운 동문이 맡았다. 그는 모교 봉사단체인 나눔실천단 단장,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멘토

단과대학별 총동창회장상·총장상 수상자

	총동창회장상	총장상
인문대	배한결	김연미
사회대	이은진	송명현
자연대	서진영	이찬영
경영대	조현일	김정환
공대	박정민	최종욱
농생대	박은별	
미대	박은지	박가은
법대	김태민	
사대	김정현	장해경
생활대	김서우	송지윤
약대	강병석	
음대	이은비	박세희
자유전공	김형준	

단 단장 등으로 활동했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대학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이 사회생활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입회를 환영하는 뜻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멀티어댑터를 선물했다.

서정화 회장 축하 <요지>

“현실 이겨낼 수 있는 의기 가져라”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함께 어울리면서 우정을 쌓아온 옆 자리의 친구들이 바로 동시대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전 요인은 헌신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금 대학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도 모교와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겸손,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참여와 봉사의 정신을 체득한 인재가 곧 대한민국의 리더이며 서울대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처한 현실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어려움도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울대인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미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기를 가지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지향하며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지도적 지성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가 품은 큰 꿈이 성취되어 국가와 국민의 행복으로 결실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모교와 함께, 민족공동체와 함께 발전하여 끝내 큰 역사를 이뤄내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시기를 믿고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발전의 전도를 열어낼 수 있는 지성,

성낙인 총장 식사 <요지>

“각별한 사랑받은 만큼 겸손해야”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진리탐구와 학문창달을 선도해왔습니다.

우레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진리탐구와 학문창달을 선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나 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맥을 같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서울대인은 한반도의 도서벽지를 찾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선한 인재’입니다.

냉철한 지성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더 풍요롭게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해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예로운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우리가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 후배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축하 <요지>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세요”



학업이나 수련기간, 군대와 같이 해야만 하는 기간이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때부터는 자신만의 진로를 정해야 하는 더 어려운 선택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 제가 선배이자 사회 경험자로서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즐거워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련되게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며, 열심히 일하는 것에 여러분의 상사가 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여수의 신풍리에 있는 한센병 환자와 소아마비 장애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의 일이 제 마음에 들었고 보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상하 수직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조금의 실수도 포용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하여 여러분들이 여간 감심장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 무사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 후 34년간 봉직하게 된 제일 큰 힘은 그 선택을 나 자신이 했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 해달라는 부탁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조직에 들어와 열심히 즐겁게 일한 결과, 주위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아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위

부디 앞길을 잘 선택하시어 먼 훗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축하 광고 안내

대학 신문에서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 기업, 기관들의 축하 또는 격려 메시지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광고 게재 문의는 대학신문 업무국 (전화번호 : 02-880-52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S 세계대학평가’ 35위로 한 계단 상승

MIT 1위, 스탠포드 2위

모교(총장 성낙인)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6년 세계대학평가에서 35위를 기록했다.

2012년 37위, 2013년 35위, 2014년 최고 순위인 31위에 올랐던 모교는 2015년 36위를 기록한 후 올해 한 단계 상승한 결과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의 MIT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스탠포드대, 3위에는 지난해 2위였던 하버드대가 올랐다. 아시아 대학 중에는 싱가포르국립대가 지난해와 동일한 12위를 차지하며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난양공대(13위), 칭화대(24위), 홍콩대(27위), 도쿄대(34위), 서울대, 홍콩과기대(36위)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대학 가운데 100위 내에는 모교를 비롯해 카이스트(46위), 포스텍(83위), 고려대(98위)가 이름을 올렸다. <표 참조>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가 40%, 논

문 피인용 20%, 졸업생평판도 10%,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 20%, 외국인 교수 비율 5%, 외국인 학생 비율 5% 등 총 6개 지표를 합산해 평가한다. 전 세계 3,800개 이상의 대학을 평가해 700위권 밖까지 총 936개 대학의 순위를 공개했다.

모교를 비롯한 국내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QS는 “한국 대학이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는 세계 학자들과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의 연구 실적과 졸업생 우수성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해 매긴다.

모교는 ‘학계 평가’ 항목 세계 30위, ‘졸업생 평판도’에서 37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교수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에서는 각각 419위와 순위권 바깥이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 톱3 대학 중 카이스트, 포스텍 또한 위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외국인 구성원 비율 등의 국제화 제도가 국내 대학들의 공통 과제로 지적됐다. 박수진 기자

2016년	2015년	대학(국가)
1	1	MIT(미국)
2	3	스탠포드대(미국)
3	2	하버드대(미국)
4	3	케임브리지대(영국)
5	5	칼텍(미국)
6	6	옥스퍼드대(영국)
7	7	UCL(영국)
8	9	ETH취리히(스위스)
9	8	임피리얼칼리지(영국)
10	10	시카고대(미국)
12	12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
13	13	난양공대(싱가포르)
15	15	예일대(미국)
24	25	칭화대(중국)
27	30	홍콩대(홍콩)
34	39	도쿄대(일본)
35	36	서울대(한국)
46	43	카이스트(한국)
83	87	포스텍(한국)
98	104	고려대(한국)
106	118	성균관대(한국)
112	105	연세대(한국)

개교70주년기념 사진공모대상작



시간의 서신

지난 9월 5일 모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과거와 현재-우리 사진공모전’에서 방경태(기계항공공학07입) 학생이 출품한 ‘시간의 서신’(사진)이 모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공모 작품은 서울대 예술복합동 2층 우석 갤러리에 전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250여 대학 구성원들이 출품했다.

서울대 캠퍼스 구석구석 안내 앱 출시

드넓은 모교 캠퍼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최근 모교 정보화본부는 학내 건물 검색, 길 찾기, 캠퍼스 투어 등을 제공하는 ‘서울대 캠퍼스 맵’ 앱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대 캠퍼스 맵’은 모교 관악캠퍼스 지도 및 길찾기 기능, 캠퍼스투어, 행사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교내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와 대중교통, 도보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차장과 은행, 식당 등 편의

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도 제공한다. 국문과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전환 가능하며, ‘장애인 모드’를 설정하면 각 건물의 진입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칸이 있는 가까운 화장실 등 장애 학생과 출입자를 위한 교내 시설을 알 수 있다. 또 캠퍼스투어를 통해 서울대의 계절별 풍경을 사진으로 감상하는 ‘시즌 코스’, 미술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전시회 코스’ 등을 즐길 수 있다.



‘서울대 캠퍼스 맵’을 통해 본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버들골 풍산마당 주변 주차장을 검색했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창업멘토 프로그램 실시

모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이하 센터)에서 ‘창업멘토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기업 우수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실무 및 멘토링 교육을 펼쳐, 창업 생태계에 고급 인력을 진입시키려는 취지이다.

교육 수료자는 향후 대학기업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으로 활약하거나 직접 창업할 수도 있다. 교육내용 또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창업 능력을 배양하는 창업자 교육과 의사소통 및 협상 전략을 배워 창업멘토로

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창업멘토 교육으로 구성된다. 스타트업 아카데미에서 창업준비 중인 모교 동문들과 연계해 현장감 넘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교육비는 센터에서 전액 부담한다. 남익현 센터장은 초정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자를 양성해온 센터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력자 및 조연자 역할을 하는 창업멘토 또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나경태 기자

발전기금 소식

한국타이어 2억원 기부

한국타이어(대표이사 부회장 서승화 AMP 52기·AFP 2기)가 최근 모교 사회과학대학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모교에 발전기금 총 5억원을 쾌척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990년부터 모교 비교문화연구소와 경영대, 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 출연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조성한 ‘사회과학대학 우수교수상 기금’은 교육 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한 예비 사회인력을 개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승화 부회장은 “이번 후원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www.dcsteel.com

코스닥상장법인

Shared & Sustainable Growth

21세기 소재가공의 새로운 표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객을 섬기는 영원한 기업 대창스틸!

포스코 가공센터

POSCO Service & Solution Center

대창스틸

인천공장 (본사)

www.dcat.co.kr

알루미늄 판재산업의 미래 대창AT!

SHEET

COIL

PLATE

www.dacmotors.co.kr

친환경 전기차로 세계시장을 향해 뻗어가는 전기차 전문기업 대창모터스!

골프카트

한국아쿠르트 전용카트

리튬이온 배터리 (SPM-B48, B72SERIES)

알림 서울대 졸업생 커리어 실태조사 실시

총동창회와 서울대 경력개발센터는 9월 말~10월에 걸쳐 최근 10년간 본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커리어 실태조사’를 공동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될 자료 및 졸업 동문들의 의견은 후배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진로·취업 정책 수립 및 지원체제 개선 방안 모색과 동문 선후배간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응답은 약 2분 정도 소요되며, 설문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니, 동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02-880-2576

“일당백 인재 육성만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지요”

손일근 가천대 석좌교수·서울대 발전위원회 고문

손일근(법학51-64) 가천대 석좌교수는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동문이다. 3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법대동창회 및 총동창회 임원으로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모교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개학 120주년 기념 개교식에서 60번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권이혁 전 모교 총장은 에세이집 ‘평화와 전쟁’ 중 ‘존경하는 인물’에서 손 동문을 꼽기도 했다. 50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손 동문은 동창신문 논설위원, 편집인으로도 오랫동안 봉사했다. 서울 공덕동 SNU 장학빌딩에서 손 동문을 만났다.



34년간 동창회 봉사...60번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동창회와 인연이 오래 됐지요.

“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백상기념관장 시절인 1980년 법대동창회 부회장으로 인연을 맺었지요. 1992년 총동창회 편집위원(현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회보 편집에 도움을 주다가 2000년부터 상임부회장을 맡아 2014년까지 총동창회 일을 도왔습니다. 모두 34년에 걸친 긴 세월이었습니다. 능력도 주변도 별로 없는 저로서는 몸으로나마 열심히 뛰어 선·후배 동문님들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모교를 지원해 일당백(一當百)의 엘리트인재를 길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동량으로 봉사하여 크게 보답케 하는 것이 선진국형 선순환의 원리이며 저로서는 이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임부회장직에서 물러나셨지만 동창회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동창신문도 젊어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창회는 동문간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가운데 뜻을 모아서 모교를 지원하고 어려운 후배들이 나오지 않게 돕는 것이지요. 서울대총동창회는 서울대를 넘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합니다.”

손 동문은 법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시절부터 주간신문 서울타임스 편집장을 맡는 등 출판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졸업년도가 늦으니까 고시를 준비한 게 아닌가 궁금해 했는데 고시에 응해본 적이 없다”며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일보에 입사했다가 한 친구의 설득으로 뒤늦게 졸업장을 받았다”고 했다.

-저서 ‘나는 고발자이고 싶었다’에 보니 4학년 때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 ‘정치투쟁의

윤리성’이 문화면 톱으로 실리면서 한국일보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나옵니다.

“신화와 같은 옛 추억입니다만은, 해방공간에 좌우가 격돌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이 되려면 열정을 나라를 위해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웃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정독했고 웅변대회도 나가곤 했지요. 지금의 고3에 해당하는 구제 중학교 졸업시에는 동기생 간에 석별이 아쉬운 나머지 감상문 아니면서 시 또는 자기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교환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졸업생도 아닌 저의 법제과목 담임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적힌 메모지를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내 과목 법제(法制)의 최고특점자를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요. 미래의 손재판장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엔 안경을 쓴(당시 안경 안 썼음) 저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51학번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당시 중학교 국어교사이던 저의 선고(先考)께서 어렵게 마련 해주신 등록금으로 등록을 마쳤지만 부산 피난길에 시체말로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정당의 선거유세반원으로 뛰었으며 한때는 주간 신문의 편집장도 해봤습니다. 결국 모 일간 신문의 기자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신문사 일에 쫓기다보

니 4학년 1학기 학점을 따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무기휴학에 들어갔습니다. 근 10년이 다 돼야 뒤늦게 복학해 4학년 2학기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때 신문사일이 사회를 위해 가장 보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유세반 아르바이트에서 정치에 대한 실망도 큰 상처가 됐고요. 그래서 근 50년을 정신없이 뛰어나다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1980년부터 법대 동창회에서 시작된 봉사활동은 34년간에 걸친 제 생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고 저에게는 제 2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시죠.

“20대 때 황산덕 교수와의 세대론 논쟁, 한국일보 동경지사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이 기억에 납니다. 특별히 동경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장기영 사장에게 월남 특파원 파견을 건의해서 이뤄진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73년 정월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월남전쟁은 휴전이 성립됐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한국일보만은 월남에 특파원을 보내 휴전 후의 현지 표정도 살피고... 뜻밖의 대어를 특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오지의 메모를 항공편의 업무용 파우치에 넣어 장기영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휴전한 마당에 보낼 이유가 있느냐, 근거가 뭐냐고 묻더군요. 한국 특파원이 한 명도 없고, 또 그냥 ‘영감’입니다 했지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1975년 3월 안병찬 차장(현 동창신문 논설위원)을 사이공에 긴급 파견한다는 사고가 신문에 났어요. 안 특파원은 유일한 한국기자로서 월남전 30년 전쟁의 종막을 최후의 일과까지 빠짐없이 취재, 그야말로 특종을 캐내는 대수훈을 세웠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NGO인 한국공해대책협의회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생각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국가발전의 지향점을 경각시킨다는 인식에서 두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해, 노동문제는 생소한 분야였지요. 한국일보가 요미우리와 제휴가 돼 있어서 일본의 자료를 많이 참고해 칼럼을 썼어요. ‘앞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 동문은 1978년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계와 깊은 인연을 맺는다. 김기창·천경자·민경갑·이종상 화백, 김응현·김충현 서예가, 김수현·한운사 작가 등 많은 문화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2002년 문화계 공로를 인정받아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현재는 고미술저널 회장도 맡고 있다.

-백상미술관장으로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전사라면,

“올해가 백남준 작가

서거 10주기입니다.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회고전을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 합니다. 그 기사를 읽고 한국에서도 전시를 해야겠다 싶어 당시 한국일보 특파원에게 부탁을 해서 전시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작품은 백남준 씨 부인의 일본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있으니 거기 있는 ‘피시 탱크’와 관화 등 작품들을 옮겨오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또 신문 경영주의 승낙도 여의치 않고 해서 결국 백남준 고국 첫 전시회를 놓친 게 지금도 무척 아쉽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시로는 유발서(劉勃舒)전을 꼽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작가의 국내 전시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가

“

남북통일은 세계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룻밤 잠을 설치고,

울며 사색하지 않은 사람은

애국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

장 큰 미술기관인 중국화연구원장을 역임한 중국전통화의 대가 조, 평생 말만 그린 사람입니다. 문화혁명 때도 자원해 말 키우는 곳에 가서 고된 일을 하면서 말을 그렸어요.

그 외 민화전, 가천전시회가 당시 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천전시회에는 각 종천회의 국보급 소장품들이 대거 나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장 전시도 부족해 지방 순회전까지 열었습니다.”

-즐기는 예술활동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서예를 좋아했어요. 2012년 대한민국 서예문화원로총연합회 총재 조수호 회원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지요. 명예회원 자격으로요.”

손 동문은 가천대 석좌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인이라면 선비정신에 입각해 수기치인(修己治人), 청빈겸약(淸貧儉約), 선공후사(先公後私), 억강부약(抑

強扶弱)해야 한다. 이것이 곧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원로로서 지혜를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요? 주제 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신문사에서 연두사설을 쓸 때 그동안 스스롭니다 다른 사설을 참고합니다. 읽어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습니다. 늘 난국이었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만물라가 내한했을 때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 그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는 한 모두 불가능하게 보인다.(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우리가 노력하는 한 결국 모든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대로 선비정신을 되새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바르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사로움은 뒤로 하며, 약자에게 유하고 강자에게 강한 서울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남북통일에 대한 신념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통일은 세계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하룻밤 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이 나라 운명, 애국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건강하시지요.

“한때 난청으로 좀 고생했으나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젊었을 때 마하 사람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난청이 됐던 것 같아요.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주인이 섞여 살고 있는데 말이지요(웃음)”

-마지막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들려주시지요.

“성낙인 총장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 나라의 엘리트는 국가와 미래를 짊어준 장의 적 역량과 선의지가 총명한 선한 인재를 말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끌어안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맛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가까운 거리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교를 도읍시다. 이것이 80증반에 이르러 새삼 깨우친 저의 신념입니다.” 김남주 기자



대학시절 한국일보 입사, 50년 언론인생

1932년생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주간 ‘의회보’, ‘서울타임스’ 등의 편집장을 거쳐 1955년 한국일보에 입사 비서실장, 조사부장, 도서관장, 기사심사부장, 방송뉴스부장, 논설위원, 동경지사장, 출판국장, 통일문제연구소장, 백상기념관장, 한국일보총합출판 대표이사, 한국일보 상임고문 등을 역임한 뒤 현재 가천대 석좌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해대책협의회, 노동문제연구소 등의 발기 이사로서 한국 최초의 NGO운동에도 참가 활동을 했으며, 중간에 약 2년간 삼익주택 전문과 삼주유업(도투락 유유, 아이스크림) 사장 및 회장 등으로 기업 경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사회활동으로는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운영위원, 서울법대장학회 이사, 서울법대동창회 부회장, 서울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국순회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외소재 문화재단(이사장 안휘준)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칼럼 및 단편집인 ‘독백의 여운’, ‘나는 고발자이고 싶었다’ 등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과 서울언론인 클럽에서 ‘원로언론인 특별상’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표창되기도 했다.

미래를 함께 하는 **더 나은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에선 포인트도 자산이다

은행카드 증권 보험의 포인트를 함께 모아 더 크게 키우고 전국 포인트 제휴사에서 쉽게 쓰고, 펀드/보험가입 카드결제, 환전 등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신한 FAN클럽 금융전문가 신한이 만들면 포인트도 자산이 됩니다

* 더 많은 거래로 신한 **Tops Club** 고객이 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한 FAN 클럽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신한 **FAN** 클럽 이용 방법
설치 : Google Play나 앱스토어에서 신한 FAN(앱카드) 설치 또는 업데이트
실행 : 미인증 사용자는 신규가입, 기존 사용자는 상단 신한 FAN 클럽 메뉴 실행

*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신한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6-2-634호(2016.06.22~2018.05.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621-1214-001호(2016-06-21 현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6-7342호(2016년 6월30일~2017년 6월23일) 준법감시필 : 201606-36(2016.06.30)

‘서울대 시대정신과 KAIST 프로페셔널’ 펴낸 조호진 기자

“서울대 캠퍼스 세종시로 가면 학교도 살고 지방도 산다”

대학 본질인 학문 연구에 전력 교수식당, 교수·학생 有別 상징

조호진(대학원95-05) 조선일보 과학담당 기자가 최근 서울대를 향한 목적인 조인이 담긴 ‘서울대 시대정신과 KAIST 프로페셔널(좋은땅)’을 펴냈다.

조동문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두 대학의 장점을 극대화해 발전해 간다면 한국 대학 전체가 도약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시급적인 동시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의 미래 고통을 경감할 대비책”이라는 믿음하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련 내용으로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신입생 30%를 소득최하위 계층 30% 배정’ ‘교수식당 없애기’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있다. 국가가 갈림길에 섰을 때 앞길을 알려주는 현자가 서울대에 있어야 하는데, 해외 학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다.

조동문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물리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기자로 서울대 출신 과학자를 수도 없이 만났다. 서울대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문이다. 책을 3시간 만에 독파하고 만남을 청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비교 분석한 게 흥미롭다. 제목의 의미는 뭔가.”

“두 학교를 관찰하면서 떠오른 단어도. 서울대는 시대정신(zeitgeist)이었고, 카이스트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다. 재학시절 경험과 한국 최고 과학자들을 두루 만나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대 시대정신을 표현한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시구는 현재, 미래 세대에도 유효해야 한다.”

“교수 사회를 향한 날선 비판이 곳곳에 나온다.”

“BK21 사업에서 서울대 경제학과가 탈락했다. 논문이 없었다. 어떤 교수가 학내 교지에 낸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

서 깜짝 놀랐다. 서울대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정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문과 계열 교수들의 연구실적 저조 때문이다. 또 나라의 현안이 있을 때 서울대 문과 교수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교수가 얼마나 계시는지 의문이다. 이과 교수들은 기자제, 학생 실력을 탓하기도 한다. 서울대 들어온 학생들이 하버드대생보다 우수하다고 본다. 그런 학생을 데리고 연구실적 안 나온다 탓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교수 연구실이 특정 공간에 몰려 있고 학생과는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만 만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교수끼리만 만나는 문화와 구조는 대학에서 어울리지 않다. 특히 교수식당은 없애야 할 대표적인 시설이다. 한 외국인 학생은 교수만 가는 식당이 따로 있다는 말에 끔찍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

생과 교수의 유별은 단지 기본의 문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소통의 단절, 학문 진전의 최대 적이다.”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결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두고 볼 사안이다. 서울대 출신이 될 가능성 높지 않다.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종시 정부청사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서울대가 내려가면 서울대도 살고 지방도 산다고 믿는다. 과거 이회창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대생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공부할 때는 외부 세계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 관악캠퍼스는 시대의 화두인 융합 통섭과는 시대착오적인 지형이다. 종합대학인 서울대 장점을 퇴색시키는 구조다. 공대에서 인문대까지 오르면 도로 30분 이상 걸린다. 세종시 이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시너지 효과로 ‘21세기 집현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카이스트 졸업 후 서울대를 택한 이유는.”

“카이스트 석사과정에서 떨어졌다. 서울

대도 운이 좋아 붙었다. 서울대 떨어지고 카이스트 붙는 학생도 많아 우열의 문제는 아니다. 박사 후에 학자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은 연구 성과가 탁월하지 않아서다.”

“책에서 못 담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에 편승해 사는 방식을 되돌아 봐야 한다. 고등학교 실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어떻게 실력을 쌓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자 입장에서 광주과기원 연구자나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자의 차이를 못 느낀다. 실력없이 어디 나왔다는 걸 평생 우려먹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노벨상 수상자가 국내 어느 대학에서 먼저 나올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공부 계획로는 부족하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선행돼야 한다. 시대가 갈망하는 연구 주제를 알려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사람 차체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에서 서울대는 카이스트보다 유리하다. 포스텍 염한웅 교수, 하버드대 김필립 교수, 예일대 오희교수 등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개인적으로 노벨상 후보로 흥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꼽는다.” 김남주 기자



네이버 최연소 임원 김승언 디자인센터장

“전 국민이 경험하는 서비스 설계... 매일 바쁘지만 보람 느껴”

UX 디자인 여전히 전망 밝아 더 많은 후배들과 함께했으면

김승언(디자인98-06) 네이버 디자인센터장은 시가총액 기준 국내 10대 기업 중 최연소 임원이다. 외국인, 유학파, 오너 일가 등을 제외하는 이런저런 단서가 붙긴 하지만 이제껏 삼십대 후반에 접어들어 그가 대한민국 대표 포털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8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김 센터장을 만났다.

“제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단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권한과 책임을 주는 회사의 문화 덕분에 일찍 임원 타이틀을 단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회사를 다녔고, 회사의 성장과정에 저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니까요.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욱 젊은 회사였죠. 네이버니까 가능

했던 일 같아요.”

디자인을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는 김 센터장이지만, 13년 동안 네이버에 몸담아 오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다. 그 린팩토리 건설 당시엔 인테리어 콘셉트 구현에 합류하기도 했고, 입사 초기엔 자사 광고를 만들기도 했으며, 2005년부터 2년간 미국지사에도 파견 나갔을 때에는 사무실 세팅과 비품 구입까지 스스로 해야 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더라도 그는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의 직무가 요구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IT업계 판도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 직업을 바꾼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익혀나가야 하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디바이스 자체가 변할 때에는 물론,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거나 바뀔 때에도 UX 디자이너들은 고민

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매순간 뛰어야 되는 직종이죠.”

UX는 User Experience의 줄임말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뜻이다. UX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설계한다. 네이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서비스의 ‘설계자’

인 것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사용자의 요구 충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워낙 다양한 연령대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도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이버의 디자인은 그 수많은 사용자의 요구 속에서, 그리고 기업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잡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네이버의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DEA·레드닷·IF 등에서 매년 꾸준히 수상의 영예를 안고 있으며, 2011년 칸 국제광고제 PR 부문에서 은

사자상을 거머쥐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을 가장 중요시하는 김 센터장은 솔직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보기 좋은 디자인’보다는 ‘쓰기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열정적으로 일하는 김 센터장이기에 더 많은 후배들과 함께 일했으면 하는 소망을 감추지 않았다.

“IT업계에 뛰어드는 후배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예전엔 석유회사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IT 기업들이 그 자리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같은 IT 직종 내에서도 UX 디자이너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요.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더 많은 후배들이 도전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나경태 기자



Together, we are advancing technology.

기술 발전을 통한 진보, IEL /ASTM 컨소시엄이 함께 합니다.

특별한 컨소시엄 혜택

올해도 80여 곳이 넘는 국내 대학기관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컨소시엄 혜택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내년을 위한 특별한 컨소시엄 혜택,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노블라인 모발이식센터

홈페이지) www.total-view.net
상담문의) 02-514-0755

통증이 적고 결과가 뛰어난 비절개 모발이식 전문

“보건의료대상 2년 연속 수상”

“중앙일보선정 명의 모발이식부문”

“파워코리아 모발이식 명의 선정”

“The Korea Herald지 모발이식 Best Brand”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블라인은 조작이 쉬운 사진보다는 Total-View(토탈뷰)라는 시스템의 동영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ww.lottechem.com

Life Value Creator

롯데케미칼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곁에 머무는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
자연과 사람 곁에, 롯데케미칼



Global leading chemical company **LOTTE CHEMICAL**

저자와의 만남

유럽 문화 始原 이탈리아의 모든 것



이탈리아 이탈리아
김영석 전 이탈리아 대사
(영화당 18,000원)

35년간 외교관 경험 바탕 조선시대 연행록 전통 계승

김영석(외교71-78 페레로 아시아 한국 고문·본부 부회장) 동문이 최근 이탈리아 입문서 겸 여행 안내서 '이탈리아 이탈리아 (영화당)'를 펴냈다. 주 이탈리아 대사를 끝으로 외교관 생활을 마친 김 동문은 자타 공인 유럽 전문가다. 유고슬라비아, 노르웨이에서 대사를 지냈고 구주국장을 역임했다.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소련지역연구 석사학위를 받고 '소련사'를 번역하기도 했다. 유럽의 정치 외교 뿐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에 그의 깊고 넓은 지식, 경험이 생생한 필치로 녹아있다. 당장 이탈리아로 떠나고 싶게 만든다. 아무 책이나 함부로 만들지

않는 영화당이 끼여 통로가 돼줄 만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양재동 페레로 아시아 사무실에서 만난 김 동문은 "2014년 월간 조선의 청탁을 받아 10개월간 연재한 내용을 한 권으로 책으로 엮었다"고 했다.

"35년간 외무 공무원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로 있는 김창기 동문이 기회를 줘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죠. 연간 이탈리아를 찾는 한국 여행객이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공부 등으로 체류 중인 분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이탈리아의 역사, 문화를 쉽게 안내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쓰게 됐죠. 아는 만큼 보일 테고,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책은 로마의 교회들, 라치오의 고읍들, 피렌체 산책, 나폴리에 살레르노까지 등 지역별 특징을 살린 8개의 챕터와 이탈리아의 통일과 오늘 등으로 구성됐다. 서두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입문 챕터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이탈리아에 살아 돌아본 무궁한 문화 유산과 거기에 얽힌 무진한 이야기에서 취한 것들이다. 이들 유산과 문화를 살펴보면 고립된 개별적 대상으로서보다는 역사적 맥락이나 시공간적 연관성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잊지 않았다.'

책 말미에 적시한 역사, 문화, 미술 등 참고문헌만 총 80여 권이 넘는다.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 아닌 소장하고 있는, 체화된 자료다.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 구입한 자료예요. 도서관에서 발견한 19세기 책도 있고 1963년판 책도 있죠. 워낙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직업이 외교관이다 보니 해당 국가의 역사, 사회 흐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관 전 외교교통상부 장관은 한 신문 서평란에 "이

탈리아에서 만나는 엄청난 문화유산과 작품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저자는 그만의 감수성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스토리를 현미경으로, 동시에 망원경으로 조망하듯 그러한 작품들이 엮어내는 유장한 인간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풀어냈다"고 평했다. 최원식 문학평론가는 서문에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거론하며 "조선시대 외교관의 연행록(燕行錄), 해유록(海遊錄)의 두터운 인문학적 전통을 김영석 대사가 잇고 있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동문에게 이탈리아를 일주일간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6개 거점을 먼저 생각해 야겠죠. 그 다음 본인 관심사에 맞게 고대로마가 궁금하다면 로마를, 이탈리아의 패션, 현대성을 느끼려면 밀라노, 독특한 문화적 풍광을 느끼고 싶다면 베네치아, 장인·세공 등에 관심이 있다면 피렌체를 돌아 보면 좋겠죠. 시칠리아는 지중해 문화권 양식을 맛보기에 좋고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몇 개 지역을 돌며 각 지역만의 특색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죠. 제 책이 좋은 길라잡이가 돼줄 거라 믿습니다.(웃음)"

김남주 기자



BOOK

특혜와 책임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가디언·16,000원)



상층은 있는데 상류 사회는 없고, 고위층은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혜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혹은 모른척 하는 철면피 상층과 우리나라에 저자 송복(북치56-60) 동문이 가차 없는 채찍을 들었다. '특혜와 책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는 한국 상층의 민낯을 조명하며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저버린 한국 상층을 질타하는 저자 송복의 따끔한 일침을 담은 책이다. 송 동문은 우리보다 앞서 민주화한 선진국가인 영국, 미국, 일본 상층의 예를 들며 그들이 변함없이 200년 이상 선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꼽는다.

포르들의 춤

최수철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문학과지성사·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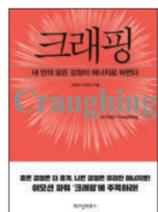


최수철(불문77-81) 동문의 연작소설집. 의식을 추적하는 집요한 언어와 무수하고 치밀한 감각의 연쇄가 낳은 감각의 무정부 상태를 그린 작품 세계로 현대

한국 소설사에 뚜렷한 족적을 새겨온 저자의 여섯 번째 소설집이다. 지난 3년간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에 걸친 기록들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낸 최 동문은 1952년의 어느 겨울,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한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포로들을 포착한 베르너 비숍의 사진 아래 적힌 설명글에서 영감을 얻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실재하는 역사 속에 투입한 의식과 상상력의 소설 언어로 날날로 있던 사건과 의욕, 구명과 관계들을 퍼즐처럼 꿰맞춰가는 치밀한 구성으로 영혼까지 빼앗겨버릴 만큼 공포와 치욕으로 참혹했던 공간의 인물들을 지금, 여기에 소환하고 역사의 이면을 추적해가는 한편, 가슴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작품이다.

크라핑

강동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박현찬 스토리록 대표 공저
(위즈덤하우스·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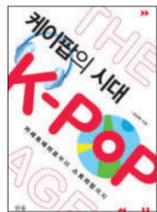


'크라핑'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뇌내 물질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의 변화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음을 밝힌 책이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현대 뇌과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상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

졌다. 강동화(의학87-91)·박현찬(독문82-88) 동문은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잘 이용해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케이팝의 시대

이규탁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국제학과 조교수
(한울아카데미·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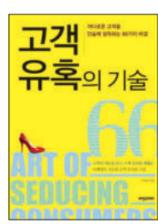


'케이팝의 시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의 음악이자, 음악산업을 넘어 한국 문화산업 전반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현상. '케이팝(K-Pop)'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규탁(영문97-01) 동문은 케이팝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다양한 로컬(지역) 음악 중 하나였던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가 어떻게 글로벌 수용자들로부터 주목받는 음악이 되었는지 정치·경제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아래 흥미로운 서술을 펼치고 있다.

고객 유혹의 기술

조태현 가천경영연구소 소장
(비전코리아·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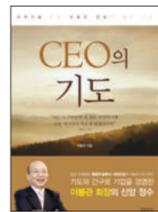
'고객 유혹의 기술'은 한국외환은행에서 22년간 근무하고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로 금융마케팅 분야를 담당했던 조태현(대학원85출) 동문이 수년간 자영업자, 중



소기업 경영자 등을 상담하고 교육하며 체득한 고객 서비스 컨설팅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 속에서 고객 유혹의 기술은 크게 4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사항, 2단계는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주요 유인, 3단계는 유치 대상 고객을 선별하는 주요 전략전술, 끝으로 4단계에서는 이제 영원한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크고 작은 경영 전략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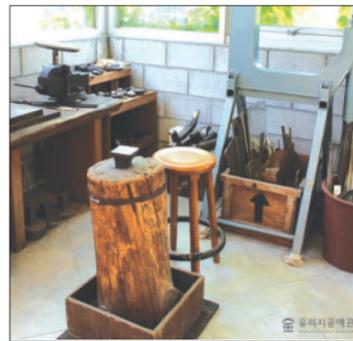
CEO의 기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와일퍼블·15,000원)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AMP 33기) 장로의 신앙 정수가 담긴 기도문. 'CEO의 기도'는 서희건설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간구로 기업을 경영한 이봉관 회장의 기업 경영 최일선에 서기까지의 삶을 소개하고, 청운교회 장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을 모은 책이다. 1부에서 저자의 인생 역경과 소회를 담담하게 소개한 뒤, 2부부터 5부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절기와 교회 행사 등에서 올린 대표 기도의 내용을 담았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등의 직분을 맡은 동문들에게 추천한다.

EXHIBITION



유리지 현대금속공예 아카이브전
서울 유리지공예관에서
10월 30일까지

금속공예가인 고 유리지(응용미술64-68) 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의 3주기를 맞아 유 교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가 개최 중이다.

한국 현대금속공예의 중추 작가인 유 교수는 견고한 금속을 시적인 풍경으로 형상화해 순수한 조형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교수의 작업실을 복원해 공개하고 손도구와 맞춤 제작한 가마, 드로잉, 모형 등을 함께 전시해 금속공예 작업 과정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 서초동 유리지공예관에서 10월 30일까지.

문의: 유리지공예관 02-578-6663

THEATER



연극 마스터클래스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테너 이상규(성악07졸·사진 왼쪽) 동문과 김현수(성악05-09) 동문이 연극 '마스터클래스'에 출연한다. 전설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가 전성기 이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마스터클래스 강의를 토대로 구성된 공연이다. 각각 오페라와 가극, 성악과 가스펠에 정통한 두 동문은 테너 토니 역으로 출연해 푸치니의 '토스카 아리아'를 선보인다.

문의: 돌곶컴퍼니 02-3672-3001

연극 '날 보러 와요'

서울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에서
9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광림(불문 71-75·사진) 동문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연극 '날 보러 와요'가 12월까지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 원작으로도 유명하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1996년 초연 이후 통렬해 온 작품이다. 김 동문은 이 작품으로 1996년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문의: 프로스펙 02-391-8223

CULTURE CHART

9월 첫째 주 기준

베스트셀러	자료=교보문고	영화(박스오피스)	자료=영화진흥위원회	뮤지컬 예매	자료=인터파크	클래식 음반	자료=교보문고	가요 음원	자료=가온차트
순위 / 도서명	작가	순위 / 영화명	주연	순위 / 공연명	출연	순위 / 음반명	음반사	순위 / 노래	가수
1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1 터널	하정우, 배우나	1 몬테크리스토	류정한, 엄기준, 카이	1 조수마라 프리마돈나-데뷔30주년기념	Decca	1 휘파람	블랙핑크
2 채식주의자	한강	2 라이트 아웃	테레사 팔머	2 키다리 아저씨	신성록, 송원근	2 머리를 맑게 해주는 클래식 10곡 클라우드뮤직코리아		2 Lotto	엑소
3 풀꽃도 꽃이다1	조정래	3 덕혜옹주	손예진, 박해일	3 도리안 그레이	김준수, 박은태	3 조수미:가장 사랑받은 크로스오버...Warner Classics		3 puzzle	씨잼
4 BIGVOCA core	신영준	4 고스트버스터즈	멜리사 매카시	4 그날들	유준상, 이경명	4 조성진:소풍 콩쿠르 실황	쇼팽협회	4 여름밤에 우린	비와이
5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5 스타트렉 비욘드	크리스 파인	5 킹키부츠	정성하, 이지훈	5 헨릭 셰링, 헬무트 발하:바흐 바이올린과...	Decca	5 Whatta Man	아이오아이
6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래	퍼영	6 마이펫의 이중생활	애니메이션	6 스위니토프	조승우, 양준모	6 조수미:미싱유	DG	6 너 그리고 나	여차친구
7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해민	7 부산행	공유, 정유미	7 잭더리퍼	류정한, 엄기준, 카이	7 DG The Originals Vol. 2	DG	7 불바야	블랙핑크
8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8 인천상륙작전	이정재, 이범수	8 아이다	윤공주, 장은아	8 정경화: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Warner Classics	8 Why So Lonely	원더걸스
9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9 폴로렌스	멜릴 스트립	9 페스트	김다현, 손호영	9 김선욱: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Accentus music	9 Day Day	비와이
10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0 올레	신하균	10 곤 투모로우	강필석, 임병근	10 백건우:라흐마니노프 피아노...	Universal classics	10 CHEER UP	트와이스

高함량 메가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신용의 상징 - 비둘기
유희양행
광고상담팀 : 1344-2402

집중력이 실력이다!

高함량 메가비타민

비타민 B군
비타민 A·C·D
칼슘·마그네슘
로얄젤라아연

고함량 메가비타민을 한 알에 집중하다
 저는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대국에 임합니다. 한 수, 한 수 집중력이 필요할 때면 고함량 메가비타민을 챙깁니다.
 피로회복 / 체력저하 / 눈의 피로 · 건조감 / 성장기 비타민D · 칼슘 · 아연 보급 / 구내염, 어깨결림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희양행 소비자 상담실 09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나만의 바리스타

차별화된 원두커피 본연의 맛을 내 맘대로

DRIP COFFEE
자 땡 핸드 드립 커피

핸드 드립커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핸드 드립커피
콜롬비아 수프리모

핸드 드립커피
에스프레소 블렌드

핸드 드립커피
유기 콜롬비아

자땡 핸드 드립커피 컬렉션은 엄선된 프리미엄급 원두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핸드드립 원두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jardin.co.kr | jardinshop.co.kr

새로운 생활의 큐레이터 **롯데마트**

Hav'eat
자연을 담은 건강한 습관

3LOW
건강한 생활 제안

Yorihada
요리에 즐거움을 더하다

Toys R Us
세계 최대 장난감 세상

ROOM X HOME
건강을 COOK하다

ROOM X HOME
공간에 스마트와 건강을 입히다

LOLOTETE
육아의 모든 것

page green
일상에서 여유를 찾는 녹색공간

PET GARDEN
All about P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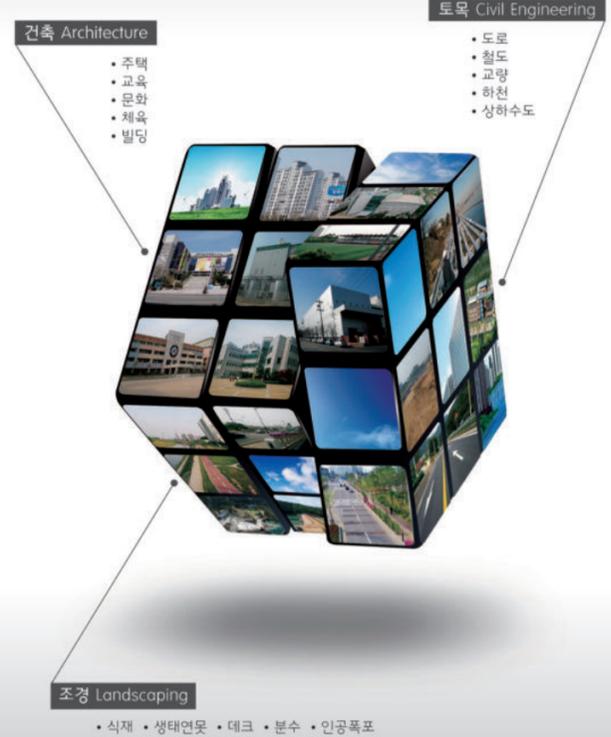
MOTORMAX
내 차에 가치를 더하다

It.Street
나만의 잇 스타일을 발견하다

T.E
Trendy in Everyday

With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

www.shinhan-com.co.kr



Since 1970

신한건설(주)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원이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3, A동 1305호 (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Tel. 031-449-4450 Fax. 031-446-8089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 창업전문브랜드 ABMKOREA

생활용품 업계 1위 ABM KOREA 품질도 가격도 역시 1등!
전국 최대 규모인 5000평 매장에 10만가지의 상품 항시보유!
정성과 30년 노하우를 더해 차원이 다른만족!

ABM KOREA는 1987년 10월 설립되어 5000여명의 규모에 국내 생산품, 수입품 및 OEM 약 10만 여종의 제품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100여국에 수출하며 제조, 유통분야에서 높은 수출 경쟁력을 입증 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으로 전국 최대 유통기업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저희 ABM KOREA는 정성과 자존심을 더해 차원이 다른만족,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몽골,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tc



●상품입고



●컨테이너작업



●상품출고



●ABM분당정자점



●ABM인천경서점



●ABM완도점

※우리는 당신을 찾고있습니다.

무일푼으로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분은 방문 또는 연락바랍니다.

창업문의 이창렬부장 : ray810611@naver.com

대표번호 82-31-766-7141~6

www.domecall.com 빠른창업상담 010-7328-3033(영어/한국어가능)



당회장 강영선 목사

- 예장 총회 신학교
- 아세아 신학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acific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LP 21기 원우회 고문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 역임
-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총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제1대 통합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총사회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교포총연합회 총재

2016년 교회 표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 UN제5사무국 대한민국유치법시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부원장
- 여의도순복음총회신학교 학장
- 일산순복음영산교회 당회장



www.ilsanfygc.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431번길 79

☎ 031-901-0191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e-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한완상(사회55-60 전 부총리·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지난 8월 24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내정.

이헌재(법학62-66 전 경계부총리) 지난 8월 18일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해 출범한 여사재(與時齋) 이사장에 선출.

조무제(대학원70졸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지난 8월 23일 임기 3년의 한국연구재단 제5대 이사장에 선임.

송필호(경제68-72 중앙일보 부회장) 최근 사단법인 아시아기자협회(이사장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부이사장에 선임.

김정희(농화학70-74 KAIST 교수) 지난 8월 25~26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생명공학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오연천(정치70-74 울산대 총장) 지난 8월 17일 출범한 울산에너지포럼 초대 대표에 선임.

김학노(원자핵공학70-79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지난 9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에 선출.

배기동(고교인류71-75 한양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임기 3년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

신희택(법학71-75 모교 법학부 교수) 지난 8월 17일 임기 3년의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한석경(국문74-78 동아대 교수) 지난 8월 1일 임기 4년의 동아대 제15대 총장에 취임.

김현명(불어교육75-79 전 외교부 대사) 지난 7월 29일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김홍주(의학75-8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지난 8월 30일 임기 2년의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중앙의료원장에 선임.

황주호(원자핵공학75-82 경희대 교수) 지난 9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원자력학회 제29대 회장에 취임.

송인호(건축76-80 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8월 12일 임기 2년의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임명.

서두원(사회76-81 SBS 비서실장) 지난 8월 23일 SBS 보도본부장에 선임.

김희남(무역78-82 SBS 경영지원본부장) 지난 8월 23일 SBS 미래전략실장에 선임.

김태호(산업공학79-83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지난 8월 25일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

김재수(행대원79-8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지난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정.

정학근(농학79-85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장에 임명.

정만기(국민윤리교육 81-85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지난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

이병길(행대원83-85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지난 8월 2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위촉.

김재형(사법83-87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모교 법학부 교수) 지난 9월 1일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

이현철(경영83-87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8월 3일 한국자금융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박한일(대학원84-86 한국해양대 교수) 지난 8월 16일 임기 4년의 한국해양대 제7대 총장에 연임.

조운선(외교84-88 성신여대 석좌교수·분회 부회장) 지난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

성상현(경영84-89 동국대 교수) 지난 8월 1일 대한리더십학회 제13대 회장에 취임.

조경규(행대원87-91 국무조정실 제2차장) 지난 8월 16일 환경부장관에 내정.

김경원(AIP 14기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지난 8월 1일 위클리모회 회장(발행인)에 선임.

박창민(AIP 19기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 지난 8월 23일 대우건설 사장에 취임.

권기선(ACAD 77기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최근 임기 4년의 대한국학기공협회 제6대 회장에 선출.

변동식(AIC 22기 CJ 사회공헌추진단장) 지난 8월 17일 CJ헬로비전 대표이사에 선임.

신인섭(AIC 22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 지난 8월 26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 내정.

진정구(GLP 28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난 8월 5일 국회 입법차장에 임명.

추미애(ALP 10기 국회의원) 지난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

김상향(AFP 12기 삼성생명 사장) 지난 7월 2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제30대 회장에 선출.

남삼현(ASP 11기 한양대 특임교수) 지난 8월 1일 대한당구연맹 통합 초대 회장에 선출.

이은우(ABKI 5기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총장) 지난 8월 1일 임기 3년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에 선임.

수상

심헌섭(행정56-60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 지난 8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유안진(교육61-65 모교 소비자안전학부 명예교수) 지난 9월 3일 경남 창원시 진해문화센터에서 제27회 김달신문학상(시 부문) 수상.

신성철(응용물리71-75 DGIST 총장) 지난 8월 1일 타이완 타이난에서 개최된 아시아 자성연합회(AUMS, Asian Union of Magnetics Societies)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AUMS상 수상.

김인권(의학69-75 여수대병원 명예원장) 지난 8월 23일 중외학술복지재단으로부터 제4회 성천상 수상.

김기남(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사장) 지난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컨벤션에서 열린 플래시메모리서밋(FMS)에서 평생공로상 수상.

신연희(ACAD 59기 서울시 강남구청장) 지난 8월 19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 수상.

행사

권혁승(상학53-57 백교문화회 회장) 지난 8월 12일 강릉 오죽헌의 사모정에서 '사친(思親)문학' 창간식 및 제7회 백교문학상 시상식 개최.

김용수(화학59-63 전 한성대 교수) 지난 8월 국립중앙도서관에 1만3,800여 책기증.

인보길(독문59-65 뉴데일리 대표) 지난 8월 16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부산정치파동: 발해개헌 파동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주제로 이승만포럼 개최.

김경재(정치60-64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위협, 그 실제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김훈동(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지난 8월 3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2016년도 '경기청소년적십자(RCY)하계안전캠프' 개최.

박용상(법학63-6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3~24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혐오와 모욕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장명동(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정비를 위한 사법 인프라 지원 방안'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김성호(경영67-71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지난 8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박헌렬(화학공학67-71 국제화학회 회장) 지난 8월 2일 인도네시아 보고르대학교에서 열린 인간생태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속적인 세계를 위해 왜 힐링이 필요한가' 주제 발표.

한덕수(경제67-71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지난 8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김인식(독문69-7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지난 9월 7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도서관 '한국에 오다(ODA)'전 개최.

이윤성(의학71-77 모교 법의학교실 교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연구원 회의실에서 제16회 콜로키움 개최.

전홍택(경제72-76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지난 8월 8~23일 대덕연구개발특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지에서 '모로코 경제개발전략과정' 개최.

안지환(성악73-77 신라대 교수·그랜드오페라단 단장) 지난 8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개최.

김대익(건축74-78 한경대 교수·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제2회 건축도시포럼 개최.

정호열(법학74-78 성균관대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지난 8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집단 및 사적분야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소진광(지리교육75-79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지난 8월 16~31일 아프리카 5개국(우간다, 부룬디,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의 상호 협력방안 논의.

조성겸(신문77-81 충남대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 지난 8월 22~2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2016 아시아 언론학 포럼' 개최.

성시현(요업공학78입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장) 지난 8월 8~12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재외 한인공학인이 참석하는 '글로벌 기술전략포럼' 개최.

조성환(축산78-83 경기대 교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지난 8월 24일 서울 충정로 경기대에서 '한-중관계의 정치외교사적 탐구: 근대와 탈근대의 변주'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김대영(화학79-83 선화예고 강사·평창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관훈동 백승갤러리

에서 '강원의 산하, 그곳에서 나를 보다'전 개최.

오승하(의학79-85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이과학회 회장) 지난 8월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2016년 우리나라 귀건강 안전하기'를 주제로 귀의 날 50주년 기념 공청회 개최.

이창운(한대원80-85 한국교통연구원장) 지난 8월 2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KOTI 30년, 국가교통미래 30년'을 주제로 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문재완(공법81-85 한국외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개최.

김재춘(교육82-86 한국교육개발원장)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 구상'을 주제로 KDI 창립 44주년 학술세미나 겸 제95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천홍욱(행대원84-86 관세청장) 지난 8월 19일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섬유수출입업체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김선덕(행대원87-89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지난 8월 3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주택 금융·보증 리스크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원광호(ACAD 36기 한국바른말연구원장) 지난 8월 29일, 9월 5일 여주시와 서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글에 담긴 세종정신과 올바른 공공언어'를 주제로 강연.

상가 명복을 빕니다

▲이춘녕(농학36-39 모교 명예교수) 7월 31일 별세(99세)

▲신찬우(영어교육48-52 숙명여대 명예교수) 8월 13일 별세(87세)

▲이덕희(행정59졸 소설가) 8월 11일 별세(79세)

▲최상태(행정58-64 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8월 30일 별세(77세)

▲김진만(법학60-64 전 한빛은행장) 7월 30일 별세(74세)

▲조규욱(농경제61-68 전 현대증권 사장) 8월 28일 별세(73세)



interbiz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한국산업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인적자원 아웃소싱 전문기업의 힘.
2015 한국산업대상(창조경영 부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용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고의 업무 파트너 (주)인터비즈니스시스템.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MOTIE,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tra Korea Trade Development Promotion Agency, 동아일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주)인터비즈니스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평) 02-799-7979

HR 아웃소싱 서비스, 인재파견 서비스, 헤드헌팅 서비스, 채용대행 서비스

명사칼럼

뇌의 문제가 장기에 있을 수 있다



김규원
(제약72-76)
모교 약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우리는 현재 일상적으로 많은 약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약들의 종류와 양은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여 지금 수준으로는 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연물질상태였으며, 그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1세기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된 약의 종류와 다양함을 감안하면 아주 짧은 시기에 약은 크나큰 발전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였을까? 그것은 당연히 현대 과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과 과학의 발전과는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미래 약에 걸맞는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탄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약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를 예로 들어 약의 진화와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예상해 보자.

1860~80년대에 현미경을 이용한 세균학, 미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발견되었고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후 곰팡이 종류인 방선균으로부터 항생제들을 분리, 정제할 수 있는 천연물화학, 분석화학의 과학적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1943년 왁스만에 의해 결핵균 치료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이 발견되었고 항생제들의 화학구조가 규명되었다. 그리고 소량의 천연항생제들이 미생물 배양기술과 합성화학, 그리고 약품제조화학이 발전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학기술에 힘입어 항생제의 전합성과 반합성, 그리고 유도체 합성이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효능이 증가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킨 새로운 유도체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시기가 1940~1960년대로서 항생제 개발의 황금 시기라 불리운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항생제의 발견은 급속히 감소하고, 그 대신 항생제 사용범위가 주사용, 경구용뿐만 아니라 피부연고 등으로 다양화 되는데, 이것은 약품물리학, 약제학 분야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된 항생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탈로스포린계 항생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1953년 곰팡이의 일종인 Cephalosporium 균에서 세탈로스포린 C가 분리되고 1959년 그 구조가 결정이 된 후 1960년대 제 1세대 세탈로스포린을 거쳐, 1970년대 제 2세대, 1980년대 제 3세대, 1990년대 제 4세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 5세대로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들의 출현 때문이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 병원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

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장내미생물과 관련된 질병은 크론병 등 염증질환, 알러지 등 면역질환으로부터 아토피 등 피부질환, 비만, 그리고 우울증, 자폐증 등의 정신질환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대해 스탠퍼드 의대의 소넨버그박사는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책에서 장내미생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최근 미국을 비롯한 과학 선진국에서 유전체 염기서열기술을 활용한 장세균계놈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다양한 세균들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몸의 세포들과 공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항생제 개발과 또 이를 실현시킬 과학기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항생제 개발 관련 과학기술은 극히 세분화된 특정 항생제를 목표로 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 영역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정보, 기술들은 세분화된 목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넓은 간격을 두고 분리된 상태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결,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할 시점이다. 즉, 인간 유전체 정보와 장내 미생물 유전체 정보, 그리고 항생제들의 효능과 부작용, 독성에 관한 정보, 환자들의 임상정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정보 등 수많은 분리되고 산재된 정보들과 지식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항생제와 세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와 이에 따른 과학기술의 창안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소넨버그가 그의 책에서 뇌질환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있다는 '뇌-장관' 축을 제시하면서, 충격을 받은 듯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어디가 아플 때 꼭 그 장기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릴 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뇌 문제의 뿌리가 때로는 장에 있을 수 있다. 인체는 하나의 복잡한 생태계이고 모든 것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대과학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체 내 장기간 상호작용, 이는 우리 동양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바가 아닌가. 인체 내 장기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항생제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
인체는 100조개의 미생물로 구성된 서로 서로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
항생제 개발 세분화에 과학 단절 산재된 지식 통합하는 관점 필요
”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대비책은 내성균에 항균효능을 가진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시도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항생제에 의한 내성균의 출현-새로운 항생제의 개발-또 다른 내성균의 등장과 같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연장시키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항생제와 관련된 전혀 다른 측면, 즉 인간과 미생물과의 상호관련성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약 10조개의 세포와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조개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로서, 피부에서부터 장내까지 수많은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세포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생제들은 병원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 내장의 세균에도 항균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장내 유산균 등 유익균의 생존에 항생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내미생물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건강상 여러문제가 일어난다.

느티나무 광장

1000원의 식사, 나눔과 공감



정재원
(국문82-87)
한겨레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8월 말 서울대 학생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학교에 불일이 있던 김에 호기심이 많았던 '1,000원의 식사'를 경험하고 싶어서였다. 지난해 6월 재학생을 위해 시작한 '1,000원의 아침'이 큰 호응을 얻자 3월 1일부터 저녁으로 확대된 식사다.

1980년대 학창시절 뽀글나게 드나들던 곳에서의 한 끼는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150원이었던가. 크게 호주머니 걱정 않고 먹었던 지하식당 라면(달걀도 있었다!)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외부인'이라 2,500원을 냈다. 푸짐한 양의 밥에 사골우거지국 그리고 달걀부침, 오이무침, 깍두기. 1,000원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아슬아슬한 시대에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식사라는 학생들의 반응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맛은 솔직히 그저 그랬다. 30년 가까운 사회생활에 입맛이 '고급'이 된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는 내내 고맷고 마음 따뜻했다. '1,000원의 식사'에 담긴 나눔과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식사는 원가가 2,500원이다. 학생 한 사람당 1,500원이 적자다. 1학기인 지난 3~5월에만 연인원 2만 1,500여명이 먹었다니, 그 기간 동안 3,200여만 원의 적자가 난 셈이다.

그 손해를 나눔이 메운다. '1,000원의 식사'를 운영하며 생기는 부족분은 매달 서울대발전기금이 총당해준다. 졸업한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밥 한 끼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과 이어지는 것이다. 한 끼 식사값도 고민하고 주저하는 청춘들을 위한 나눔이자, 그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다.

요즘 청춘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포기'다. 3포, 5포, 7포를 넘어 '10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 취업, 건강, 외모 관리, 희망, 삶이 그 10가지란다. 포기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야 'N포 세대'라고도 불린다. '포기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자조적인 말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한다.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요행히 자신은 자유롭더라도 형이나 언니, 동생 그리고 친구가 포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청춘들이 늪에서 고통받으니 부모라고 행복할 리가 없다. 기성세대가 이들을 나약하다고 나무라거나 '코뿔소처럼 돌진하라'고 다그쳐서 안 된다. 작은 것에서부터 손을 내밀고 청년들의 짐을 덜어줘

“
원가 2,500원 잘 팔릴수록 손해 동문들 발전기금으로 적자충당
얼굴 모르는 후배 위한 나눔이자 포기의 늪에 빠진 청춘에 대한 공감
”

야 한다. '1,000원의 식사'만 해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곳이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어느 자리에서든 화제가 된 식사가 있다. 청와대가 여당의 새 지도부를 불러 내놓은 '송로버섯 오찬'이다. 그 화려한 식사를 들며 당청은 서민들의 '전기세 폭탄'을 논의해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대통령의 한 끼 때문에 송로버섯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제 세상 사람은 송로버섯을 맞본 사람과 맞보지 못한 사람 두 종류라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다. 아직 먹어 보지 못해 맛을 알 길이 없지만, 오찬 참석자들의 입맛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게 분명하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싼 식재료에 최고 요리사의 솜씨가 더해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그오찬이 '1,000원의 식사'처럼 고맷고 따뜻한 느낌이었을까? 거기에 끼여 공감이었을까? 참 궁금하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매 듀오
1577-8333

후자이긴
아까운 당신
기쁜
결혼해
듀오

성혼커플수 33,090명 | 21년 역사와 규모, 매출 1위
(2016년 4월 25일 기준) (2015년 매출액 기준)

*듀오는 업계 유일의 '인감법 대상법인'(총 자산 100억 이상 기업만 해당)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포함 모든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입니다 *성혼커플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6.4.25)

천만 영화 탄생의 비밀

녹두거리에서



전찬일
(독문81-85)
영화 평론가·한국외국어대 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7일 좀비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성 액션 스릴러이자 휴먼 드라마인 '부산행' (감독 연상호)이 1,000만 고지를 돌파했다. 개봉(7월 20일) 19일째로 한국 영화로는 14번째, 외국 영화까지 포함하면 18번째였다. 한국 영화로 한정하자. '실미도' (강우석, 2003)에서 '부산행'에 이르는 열네 편의 국산 천만 영화를 탄생케 한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전에 이 사실부터 강조해야겠다. 1,000만이란 수치는 그저 수치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 수치 안에는 당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개인적·집단지적 결핍·불만·환상·욕망·소망·희망 등 심리적·정서적 기제들이 내포돼 있다고 할까. 몇 해 전부터 영화 관련 특강을 할 때마다 으레 국

산 '천만 영화'의 시대적·인문사회학적·사회문화적 함의를 역설해온 것은 그래서였다. 상기 요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텍스트 요인들. 세상의 디지털화가 선사한, 전례 없이 향상된 영화 기술력과 표현력, 다양해질 대로 다양해진 제재들, 그 결과로 성취됐을 수준급 내러티브(스토리+플롯) 파워와 연출력을 들 수 있다. 한국 천만 영화들을 예외 없이 관통한 희생의 모티브를 적절히 활용한 접근이나, 상대적으로 세련화된 OST(Original Sound Track)의 힘도 간과해선 안 될 듯. 의식을 가진 않건 간에 음악 효과는 영화 감상·흥행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성격화(Characterization), 연기·분장·무대장치·의상·조명 등을 두루 포함하는 미장센(공간 연출/mise-en-scène), 편집 리듬 등과 마찬가지로, 결국 영화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도 비례해 높아진 셈이다.

인재들이 기획·제작 및 감독, 기타 여러 분야에 대거 투신하며 영화계 인력 풀이 풍성해졌으며, 장르도 종래의 멜로, 코미디,



일러스트 쇼여정(디자인09-13) 동문

액션물 위주에서 세분화·다양화되면서 (대중) 관객의 다채로운 기호에 부응할 수 있게 된 등의 텍스트-콘텍스트 요인들도 꼽을 수 있을 터.

14편의 천만 영화 중 순수 멜로물이나 코미디, 액션물은 단 한 편도 없다. 대체는 감동, 유머, 액션 등 흥행 코드들을 적절히 융합한 혼성 휴먼 드라마다. '괴물', '해운대', '부산행' 같은 재난성이든 '왕의 남자', '광

해', '명량' 등 사극이든 간에…….

13년이 채 안 되는 길지 않은 기간에 외국 영화 포함 무려 18편이나 출현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들은 그러나 콘텍스트 층위에 존재한다. 1998년 강변 CGV의 개관 이래 해를 거듭하며 멀티플렉스 수가 급증했고, 그에 비례해 광역 개봉(Wide Release)도 늘어나는 등의 영화산업 구조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변화가 그 요인 중 하나다. 이른

바 '독과점의 역설'인 셈인데,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최악의 악덕인 독과점이 천만 영화 양산의 으뜸 동인인 것.

영화 관람의 주 고객층이 10~20대에서 30~40대로 대이동했다는 것도 결정적 콘텍스트 요인이다. 관객층이 그만큼 다층화됐는바, 과거에는 극장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50대나 60대의 장년층이나 심지어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연 주목해야 할 요인은 한국 영화의 어떤 시대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연합뉴스에 밝힌 의견으로 대신하려나.

“'부산행'은 최근 몇 년간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한국영화들의 공통적인 흥행 코드를 갖고 있다. 재벌 3세의 범죄 행각을 베테랑 형사가 단죄하는 내용을 그려 지난해 천만 고지에 오른 '베테랑'처럼 오락영화로서의 재미와 함께 사회적 메시지도 담았다. 과거 한국의 오락영화들은 재미를 추구하는데 방점을 뒀지만, 요즘은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흥행에 성공한다.”

내몰린 대학생의 방학



학생기자의 소리
이지은
(정치외교15입) 학생기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 끝에, 드디어 가을이 왔다. 등갓길에 버스 창가자리에 앉아 어느덧 쌀쌀해진 아침바람을 맞고 있으면, 문득 뜨거운 태양 아래 땀 없이 뛰어다녔던 지난 두달여의 시간이 그려진다.

각기 다른 이유로 비행기만 열 번을 탔다. 동아리에서 논문도 한 개 썼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협찬을 따냈고, 번역봉사와 서포터즈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유일한 취미인 해금연습을 했다. 그러나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보다도 늘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일정을 짠 건 나지만 사실 정말로 이런 방학을 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이걸 그저 '내몰린 방학'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서울대에서의 세 번째 방학이었다. 첫 방학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동기, 선배들이 보낸 방학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이후로, 나에게 방학

이란 막상 코앞에 닥치면 부담스러운 것이 됐다. 방학은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채워나갈지가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쉬면서 낭비하기 보다 차별화된 스펙으로 무장하기에 최적화된 시간이다.

서울대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게 당연해지고 그걸 바라보는 일부 학생들은 적어도 그만큼의 일을 해내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해낼 수 있는 사이의 괴리에 자괴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서울대생들을 종종 봐왔다. 나 역시도 무언가 하고 있음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에 시달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미루고 '있어 보이는 일'들로 지난 방학을 가득 채웠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 나는 두 달여의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내야 했다. 흔한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지난 학기에 나는 대학생답게 상당한 열정을 느꼈다. 왜 이 공부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에 치여 이런 고민을 외면한 채 학기를 보냈고, 방학도 마찬가지로

로 보낸 지금나는 여전히 '대2병' 환자다.

후회스러운 방학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생각건대, 굳이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최고가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서울대학생들은 모든 순간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급세 밀려나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스무 해 남짓한 시간을 살아왔다.

그러나 고작 전교 석차나 수능 따위에 미래가 걸리던 고등학교 시절은 진즉 지났다. 최고를 가르는 기준은 결코 하나도 아니고, 남들에게 있지도 않다. 무엇을 했건 간에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된 것이다. 모두가 동시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한 시점도 없다. 그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가는 과정을 즐기다보면 언젠가는 최고가 돼 있을 것이다.

당장 남들에게 보여줄 허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인생을 내 것으로, 그리고 길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있어서 나 자신의 페이스는 나만이 알 수 있기에, 왜 달리지 않는냐고 남들을 재촉하기 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동문 동정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개인광고 코너입니다. 팔순 잔치, 자녀 중매 요청, 일자리가 필요한 분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동안 실어왔던 인사, 행사, 수상 소식도 받습니다. 젊은 동문들의 '결혼해요', '아기 생겼어요', '승진 했어요' 등도 환영합니다.

소모임 소식
소개하고 싶은 동기·동아리·지역·직장 모임 소식 등을 보내주세요.

동문광장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감동, 내가 만난 친절, 잊을 수 없는 사람, 재미있게 읽은 책,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 200자 원고지 5~10매(A4 반장~한 장) 분량으로 매달 25일까지.
- 원고를 보내주시실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 채택된 원고는 편집 방침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나 분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 news@snu.ac.kr 홈페이지 : www.snu.ac.kr
전화 : 02-886-2219 팩스 : 02-886-2218

서울대 총동창신문

회장 서정화	편집장 김남주	편집부 기자 나경태, 박수진
발행인·편집인 박승희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광고기획 한우리 SJM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4,600석 아시아 최대 영화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국가고객만족도
롯데시네마 1위

세계 최대 스크린

LOTTE CINEMA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6414-5469, 5472